

Tel. 213-739-0403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May 14, 2015 Vol. 482

사랑의 손길이 필요해요

굿네이버스 네필 산간 지역에서 빨빠른 구호

굿네이버스가 사상 최악의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네필에 구호물품을 배분하고 의료팀을 파견하는 등 구호에 힘쓰고 있다.

특히 굿네이버스는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워 가장 큰 피해를 입었지만 자동차로 접근이 어려운 고르카 인근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빨빠르게 구호하고 있다. 이 단체는 10년 이상 이 지역에서 구호와 교육 사업을 해 왔기에 더욱 효율적으로 사역 중이다.

굿네이버스는 지진 직후 산간 지역까지 도보로 진입해 구호물품을 나눠 주었고 최근엔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의 도움을 받아 의료구호 팀도 파견했다. 고르카에서 자동차로 5시간 떨어진 마을에 이동 진료소를 세우고 매일 200여 명을 진료

김준형 기자

했다. 간단한 상처 소독부터 시작해서 외상치료, 봉합수술까지 이뤄졌다. 로산 갈레(18세, 남) 씨는 “다친 후 처음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어서 매우 감사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안심이 된다. 소독에 필요한 약도 받고 관리하는 법도 자세히 알려주어서 집에 돌아가서도 스스로 상처를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에 진료와 함께 굿네이버스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370가구에 위생키트를 배분하기도 했다.

한편, 5월 5일부터 7일까지 굿네이버스는 3,070 가구에 구호 물품을 배분한 것으로 집계됐다.

후원 문의: 1-877-499-9898(한국어 3번)



제64회 국가 기도의 날을 맞아 남가주 지역 한인들은 은혜한인교회에서 미국과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워싱턴DC 국가 기도의 날 한기홍 목사 “동성결혼은 죄” 기도

제64회 국가 기도의 날을 맞아 남가주 한인들도 미국과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했다. 5월 7일 저녁 은혜한인교회에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라는 주제 아래 열린 기도회에는 약 800여 명의 성도가 참여해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회는 각각 회개와 부흥, 가정과 학교, 국가 지도자, 교회와 문화, 조국과 선교 등 5개의 큰 주제로 진행됐다. 여러 1세 목회자와 함께 월리엄 정, 이영복, 스티븐 죄 목사 등 영어권 목회자들도 기도 인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모든 순서는 한영 통역이 이뤄졌다. 기도회에 앞서 설교는 송정명 목사(월드미션대학 총장)가 맡았다. 그는 예레미야 29장 12-13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라는 설교를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

전 세계의 종교 자유 위해 헌신 약속
이날 오전 워싱턴DC 미 의회 캐논하우스에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정계·교계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국가 기도의 날 행사가 열렸다. 오바

마 대통령은 “미국은 모든 신앙인들을 환영하고 존중하며 신앙을 누릴 불가침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강한 국가가 되었다”면서 “우리가 미국에서 누리는 종교 자유를 기뻐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전 세계 종교 자유를 위해 헌신하려 한다”고 했다.

한인 최초로 DC 초청된 한기홍 목사
동성결혼은 죄 선언하며 회개 촉구

이번 행사에는 한인 가운데 사상 최초로 한기홍 목사가 기도자로 초청됐다. 크리스천эм버시의 바비 리를 사무총장은 한 목사를 은혜한인 교회의 담임이며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의 회장으로 소개했다. 은혜한인교회에 관해서는 55개국에 270명 선교사를 파송한 5,000명 규모의 교회라고 소개했으며 미기총은 4,500여 한인교회가 속한 단체라고 했다.

한 목사는 “주님은 미국을 사랑하셔서 축복하셨고 이 나라를 초강대국으로 준비시켜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세계에 파송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다른 가난한 나라를 도우며 세

계 평화를 위해 군을 파병하게 하셨습니다”라고 한 뒤 “그러나 이 나라는 주님의 말씀을 떠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믿음의 국가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했다.

특히 그는 국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부어 달라 기도한 후 “주님은 남자와 여자로 가정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 동성결혼을 인정하려 한다”면서 “이 죄를 용서해 주소서. 연방대법원이 각 주가 동성결혼을 금지할 권한이 있음을 선언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했다.

한인 목사가 미국 지도자들 앞에서 미국의 죄를 회개하면서 특히 초미의 관심사인 동성결혼 문제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기도를 했다는 점에서 이번 일은 AP통신 등 각 언론에도 보도되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김준형 기자

동성결혼 합법화 되면 시민불복종

허커비, 그래함 등 3만 6천명 탄원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에 불복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2016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 티 샌토모 전 공화당 상원의원, 존 헤이지 목사와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는 최근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에 반대하는 탄원서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다음 달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 한다고 해도 이 법을 존중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맷 스테이비 리버티카운슬(Liberty Counsel) 창립자와 키스 포니어 가톨릭 부제가 공동 집필한 탄원서 ‘결혼 수호를 위한 연대 애에서의 서약(The Pledge in Solidarity to Defend Marriage)’에는 현재까지 3만6천여 명이 서명했다.

탄원서에서 스테이비 박사와 포니어 부제는 “이 탄원서를 통해 우

리는 연방대법원뿐 아니라 결혼 문제에 있어서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넘는 모든 법원들에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모두는 결혼은 물론 결혼에 바탕을 두고 있는 가정과 사회를 지키고자 연대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는 신앙과 가치관이 서로 다른 커뮤니티들에 속해 있지만 결혼의 정의 문제에서 하나되어 연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법원의 결정이 우리 헌법과 이성에 근거하고 있지 않고 창조의 섭리에 반대되는 것이라면 국민들은 객관적인 법 집행 기관으로서의 법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다른 많은 것들을 용인할 수 있지만 결혼의 정의 문제는 자연의 섭리와 공동의 선에 가장 근간이 되는 문제이며 여기에 있어서는 선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력히 제언했다.

손현정 기자

나라정비
나라오토덴트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 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최상의 호스피스를 사랑으로 제공합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보조사, 소셜워커,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이 직접 방문하여 돌보드립니다.
정부인증기관으로 환자분에겐 금전적부담이 없습니다.
24시간 대기 서비스 제공

시에라 호스피스 케어
www.sierra-hospice.com Tel:(213) 380-1100 Cell:(213) 700-6989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지원 마감일: 7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 는 6월 1일)

한영이중언어과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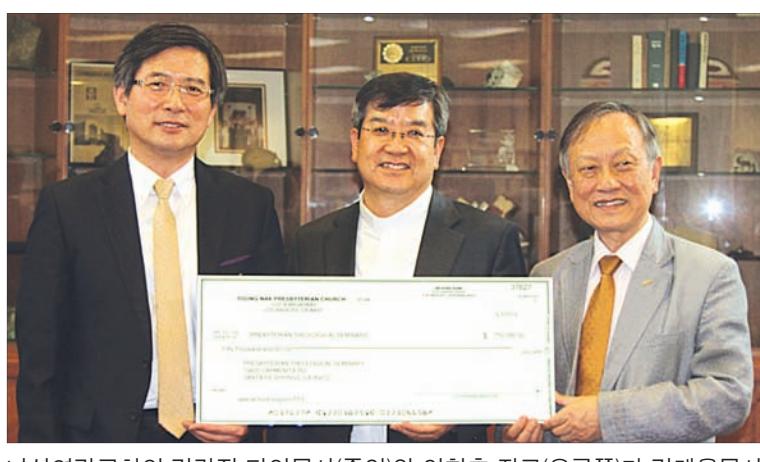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차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나성영락교회의 김경진 담임목사(중앙)와 임철호 장로(오른쪽)가 김계용목사 기념관에서 미주장신대 총장 이상명 박사(왼쪽)에게 5만불의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나성영락교회, 미주장신에 후원금 5만불 쾌척

“다음 세대 세우려면 신학교 튼튼해야”

나성영락교회(담임 김경진 목사)가 6일 오후 2시 30분 이 교회 도서관 내 김계용 1대 담임목사 기념관에서 미주장로회신학교(이하 미주장신, 총장 이상명 박사)에 5만불의 후원금을 쾌척했다. 권사들로 구성된 ‘안나장학회’가 지난 4월 23일 1만불의 장학금을 미주장신에 쾌척한 아래로, 또 다시 이번에는 교회 차원에서 5만불의 후원금을 쾌척한 것이다. 이는 나성영락교회가 신학교 후원에 적극 발벗고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날 김경진 목사는 “한인 이민교회들도 힘들지만 신학교는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려면 신학교가 튼튼해야 한다. 신학교를 통해 배출되는 목회 지망생의 신앙이 올바르게 서야 목회도 선교도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면서 “미주장신은 1대 담임인 김계용 목사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태동하게 됐다. 그 이후로 박희민 담임목사와 린형천 담임목사로 이어지면서 후원은 계속돼 왔다. 또한 미주장신은 나성영락교회가 속한 해외한인장로회 소속 신학교이기도 하여 돋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김 목사는 또 신학교 후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보다 구체적이고도 정례적인 신학교 지원 계획에 뜻을 모으고 있는 본 교회 제직회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교회 임철호 장로는 “제직회의에 참석한 이 총장이 한국교회와 이

민신학교의 어려운 점을 설명하는 가운데, 신학교가 미래의 교회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지를 잘 설명해 줘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며 “예전에는 신학교 발전을 위한 정기후원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러한 전통을 다시 살려 이민 신학교가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이상명 총장은 “한국의 대형교회들도 재정이 20%-30%대로 급감하면서 신학교 지원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인 이민교회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교 후원에 앞장서고 있는 나성영락교회에 감사를 드린다”며 “이는 다음 세대 준비를 위한 신학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우며 격려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학교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했다.

미주장신은 ABHE 정회원이면서 ATS 준회원 자격을 획득한, 대표적인 한인 이민신학교 중의 하나이다.

한편, 이날 나성영락교회가 미주장신에 후원한 5만불은 나성영락교회의 독립된 영어 목회부인 YNCC(Young Nak Celebration Church)가 지원한 1백만불 규모의 감사헌금에서 지급되었다. 김경진 목사는 이민 2세 교회가 1세 교회를 돋는 첫 모범 사례인 이 후원금을 보다 의미있는 일에 사용하고자 신학교를 돋는 일에 나누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영인 기자



재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남가주 총동문회가 은퇴한 선배 목회자들을 위로하는 행사를 열었다.

“선배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출신 동문들이 원로·은퇴 목사들을 초청해 섬기는 위로회를 열었다. 재미 총신 대학원 남가주 지역 총동문회는 지

난 12일 오전 영생장로교회에서 이 행사를 열고 목회 선배들을 위로했다.

동문회장 김혜성 목사는 “평생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시다가 이제 사역의 현장 배후에서 기도로 협조하시는 목사님들께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정완기 목사의 사회로 정진기 목사가 기도하고 표세 흥 목사가 빌립보서 4장 21-23절을 봉독했다. 이시영 목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설교를 전한 후, 윤태근 목사가 현금기도하고 원성택 목사가 광고, 양승걸 목사가 축도했다.

김준형 기자

해 더욱 뜻깊은 섬김의 시간이 되었다.

총 515명이 참석한 이 행사는 1부 예배, 2부 만찬, 3부 공연, 4부 경품 추첨으로 진행됐다. 한기홍 목사는 “어버이를 기쁘시게 하라(잠언 23:22-25)”는 설교를 전했고 조이 플찬양팀이 특송한 후, LA원로목사회 전용한 회장이 기도하고 OC원로 목사회 박승환 부회장이 축도했다.

공연에서는 방송인 서양훈 장로와 이미경 권사가 진행을 맡은 가운데 달리다구무용단, 은혜평생교육대학 중창단, 국제찬양율동선교대학 학생 등 많은 이들이 공연을 펼쳤다.

김준형 기자



은혜한인교회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 교회 내 어르신들을 섬기는 행사를 개최했다.

은혜한인교회 어르신 섬기는 뜻깊은 시간 마련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 지난 5월 5일 교

격려와 위로의 잔치를 열었다. 은혜한인교회는 이 자리에 LA원로목사회 내 70세 이상 성도들을 섬기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스트만 음대생들이 LA 바이블 컨퍼런스 기금 모금을 위해 공연한다.

뉴욕 이스트만 음대생들, LABC 기금 마련 위한 공연

뉴욕 이스트만 음대생 8명이 올해 7월 2일(목)부터 4일(토)까지 오렌지카운티에 위치한 채프먼대학(Chapman University)에서 열릴 예정인 Los Angeles Bible Conference(LABC) 기금 모금을 위해 LA를 방문한다.

이들은 5월 22일(금) 저녁 8시 그린힐스 침례교회(정기정 목사), 23

일(토) 저녁 7시 30분 로스엔젤레스 온누리교회(이정엽 목사), 24일(주일) 저녁 6시 언양교회(오경환 목사)에서 LABC 기금 모금 콘서트에 참가해 찬송가, 복음성가를 비롯해 클래식 음악을 연주할 계획이다.

콘서트는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되며 두 명의 사회자가 각각 한국어와 영어로 곡을 설명해 1세와

2세, 한인과 타민족이 음악을 통해 하나가 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연주회를 섬기는 8명의 연주자들은 이스트만 음대 석박사 과정생들로 소프라노-김현지, 오보에-이지원, 피아노-정예원, 김가을, 바이올린-이효경, 박지은, 비올라-나천미, 웨슬로-신지인 자매이며 3일 동안 각기 다른 곡을 연주할 것이다.

“영생의 말씀,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2박 3일간 열리는 LABC에서는 5명의 강사가 각각 창세기, 출애굽기, 요한복음,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을 강해설교 형식으로 강의할 예정이며 오늘날 교회가 잊어가고 있는 교회의 핵심 가치 즉 ‘성경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을 다시 회복해 이 시대 크리스천을 부흥의 전도자, 진정한 예배자, 중보기도자로 양성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문의: 강영수 목사(213-598-5323), Timothy Cho(213-800-3630)



새 빛 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버드

3130 W. Olympic Blvd, Suit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나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처진 턱선을 올려 짚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제19차 1일 신약통독 하루에 신약 27권 완독

Memorial 휴일을 맞이하여 신약 27권 260장 전 절을 하루에 통독하는 집회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신약성경 전 권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통째로 우리 마음에 담겨질 때에 놀라운 감동과 새로운 깨달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처럼 맞이하는 휴일을 하나님의 능력의 밀씀으로 무장하여 영과 육이 사롭게 활력을 얻는 복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 시 2015년 5월 25일(월) 오전8시(시간연수)

장 소 헐리웃효순장로교회 (담임 김동원목사)

1101 S. Elden Ave. L.A., CA 90006 (909)983-0994

참가비 30불 (식사 및 간식)



1101 S. Elden Ave. L.A., CA 90006

올림픽경찰서 동쪽(11가와 엘덴이 만나는 곳)

교회 찾아오는 길
(213)268-3589



주최: 미주요한선교단 (대표 안성기 목사)

후원: 갓스월연합교회 기독일보 미주복음방송 헐리웃효순장로교회

젊은 그대 잠깨어 오라~ “주님께로”

30대 영 커플 위한 나성순복음교회 새가정 공동체



새가정 공동체는 자칫하면 교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30대 젊은 부부를 위한 신앙 공동체다.

교회에 젊은이들이 줄고 있다는 것은 곧이 통계 자료를 꺼내어 놓지 않아도 모든 교회가 체감하는 현실이 되었다. 대학생이 되면 많은 청년이 교회를 떠나고, 용케 대학생 때까지 교회를 잘 다녀도 사회 생활을 시작하고 결혼하게 되면 교회를 떠나거나 그저 주일만 간신히 지키는 선데이 크리스천이 되기 쉽다. 그들의 어린 자녀들도 당달아 교회를 떠나면서 통째로 두 세대를 잊어버린다. “교회의 노령화를 방지한다”는 근사한 캐치프레이즈는 제쳐 두고라도 현실적으로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 반드시 ‘교회의 허리’ 젊은 세대가 살아야 하지 않는가?

나성순복음교회가 최근 튼튼한 허리, 탄탄한 시스템을 자랑하는 몸매로 변화되고 있다. 주일 출석 인원이 1,300여 명 정도로, 규모 면에서는 한인타운 내 교회 가운데 손꼽을 정도로 대형교회에 들지만 전체 규모에 비해 30대 영 커플(Young Couple)은 이 교회도 마찬가지 처지였다. 청년부에 속해있자니 나이 차이도 많고 삶의 환경도 완전히 달라졌다. 그렇다고 장년들이 속한 교구로 가자니 1세 중심의 문화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꼰’ 신세 말이다. 그러다 약 2년 전, 진유철 담임목사가 젊은 공동체를 향한 비전을 갖고 기도로 준비해 10개월 전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다. “젊은

부부를 위한 새가정 공동체.” 결혼을 약속한 커플부터 말 그대로 젊은 부부들이 참여하는 신앙 공동체로, 자연스럽게 20대 후반부터 30대들이 주를 이룬다.

예배와 성경공부 같은 거룩한(?) 모임부터 티타임, 운동 등 가벼운(?) 모임까지 다양하지만 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영 커플들의 으쌰으쌰’다. 사회 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현실적 삶의 문제를 젊은 부부들만의 구역 모임에서 함께 나누면서 말씀과 기도로 답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 공동체의 멤버 이 인규 씨는 “간지러운 곳을 굽어준다”고 표현했다. “학생 때나 싱글일 때는 안 하던 고민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직장에서도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부터 ‘부부 싸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출산을 위해 부모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같은 거요. 삶의 공통분모 위에서 신앙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는 “마음 속 깊은 이야기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신앙 공동체에 소속돼 있다는 그 소속감이 가장 좋다”고 설명했다.

이 공동체를 맡고 있는 이일 목사는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는 매달 두 번째 주일에 전체 모임, 첫째·셋째 주일에 소그룹 구역 모임이 있다.

그는 “청년에서 장년으로 넘어가

는 과정이 보통 교회에서 생략되기 쉽다”면서 “비교적 교육과 훈련이 잘 이뤄지는 장년 세대에 비해, 이민교회 현실상 영 커플들은 교회에 정착하기도 쉽지 않고 정착하더라도 장년들의 훈련 과정에 동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영 커플들에게 딱 맞는 성경공부와 신앙훈련으로 이들의 필요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

그렇다고 장년 세대와는 아예 선을 그어놓는 폐쇄적 공동체는 아니다. 새가정 공동체의 맞춤형 훈련은 장년 세대 중심의 교구로 편입되기 위한 준비 과정의 성격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목사는 “2년 간 새 가정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으면, 그 후에는 여러 커플들이 구역을 구성해 교구로 편입된다. 영 커플들은 장년 세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배우고 장년 세대들은 교구에 젊은 이들이 많아져 교구 사역에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주안점은 “안에서부터 가득 채워지면 반드시 밖으로 넘쳐나야 한다”는 점이다. 믿는 사람끼리 ‘좋다 좋다’에 그치지 않고 잊어버린 세대를 통째로 전도하는 것이다. 어릴 때 교회를 다닌 기억만 갖고 있거나, 교회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했던 영 커플들, 마지막에 주일만 지키는 부부와 그 어린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삶을 전하는 것이다. 처음 시작할 때는 5가정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12가정이 참여하고 있다. 3가정은 벌써 교구로 올라갔고 올드 멤버는 2가정뿐이니 현재의 10가정은 따끈따끈한 새 멤버다.

새가정 공동체는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약 10가정이 빅베어로 수련회를 간다.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출석교회를 정하지 못한 새 가정들을 초대하고 있다.

문의) 이일 목사 818-521-9200

배영준 회장 818-731-9776

김준형 기자



해피빌리지와 남가주밀알선교단이 함께 사랑의 마당축제를 열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28회 사랑의 마당축제’가 5월 2일 위튀어 내로우 공원에서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해피빌리지와 남가

주밀알선교단이 함께 연 이 행사에는 300여 명 장애인을 섬기기 위해 자원봉사자 600여 명과 행사 도우미 100여 명이 참석했다.

남가주밀알은 “올해도 여러 교회, 단체의 정성어린 수고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어머니 날 더 이상 외롭지 않아”

샬롬교회와 코이노니아 함께 어르신 섬김



남가주샬롬교회 봉사팀과 코이노니아선교회 소속 ‘윙스 오브 조이’ 찬양팀이 어머니 주일을 앞두고 7일 오전에 ‘골든 웨스트 타워’ 양로아파트를 찾아 외로운 어르신 섬김에 앞장섰다.

어머니 주일을 맞아 남가주샬롬교회(담임 김준식 목사)와 이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코이노니아선교회(대표 박종희 목사)가 7일 오전 오렌지카운티 지역 ‘골든 웨스트 타워’ 양로아파트를 찾아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고 위로했다.

이날 코이노니아선교회 소속 ‘윙스 오브 조이’는 찬양과 연주로 섬기고, 이 선교회를 후원하고 있는 남가주샬롬교회에서는 풍성한 음식 제공과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하며 보다 뜻깊은 어르신들 섬김의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김준식 목사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행16:31)’란 주제의 말씀 선포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라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기도보다도 이러한 기도를 잘 들어 주신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지고지순한 사랑은 자

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인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려 하기 때문이다”며 힘겨운 일을 당할 때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의지하며 위로받기를 권면했다.

이어서 ‘윙스 오브 조이’ 찬양 연주팀은 아름다운 성악과 색소폰, 바이올린, 피아노 등의 선율로 흥을 가득 메운 어르신들께 즐거움을 선사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계 어르신들도 많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로 동시 통역되기도 했다.

한편, 코이노니아선교회 소속 ‘윙스 오브 조이’ 찬양 연주팀은 매달 정기적으로 지역 어르신 찾기 음악으로 섬기는 활동을 지속해 가고 있다. 대표 박 목사에 따르면, 이번이 벌써 68째라고 한다. 문의는 남가주샬롬교회(310-787-1004)와 코이노니아선교회(310-508-2733)로 하면 된다.

이영인 기자



재미기독여성합창단이 창단 30주년을 함께 할 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기독여성합창단 30주년 음악회 단원 모집

재미기독여성합창단이 창단 30주년 기념 음악회에 함께 할 단원을 모집한다. 1986년 창단된 이 합창단은 2016년 10월 23일 30주년 기념 음악회를 열기 위해 준비 중이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12시 30분까지 조한우 교수의 지휘와 조혜정 박사의 반주로 미주 평안교회에서 맹연습 중이다.

이 합창단은 찬양을 통해 선교하고

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시작돼 지금까지 자연 재해 피해자들과 북한 어린이 돕기 자선음악회, 선교사 후원 음악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단장 장영순 권사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원하는 여성이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환영한다”고 전했다.

문의) 단장 장영순 213-255-6124

총무 목경순 213-500-6199

여주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환영한다”고 전했다.

문의) 단장 장영순 213-255-6124

총무 목경순 213-500-6199

여주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환영한다”고 전했다.

문의) 단장 장영순 213-255-6124

총무 목경순 213-500-6199

여주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환영한다”고 전했다.

문의) 단장 장영순 213-255-6124

총무 목경순 213-500-6199

여주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환영한다”고 전했다.

문의) 단장 장영순 213-255-6124

총무 목경순 213-500-6199

여주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환영한다”고 전했다.

문의) 단장 장영순 213-255-6124

총무 목경순 213-500-6199

여주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환영한다”고 전했다.

문의) 단장 장영순 213-255-6124

총무 목경순 213-500-6199

여주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환영한다”고 전했다.

문의) 단장 장영순 213-255-6124

총무 목경순 213-500-6199

여주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환영한다”고 전했다.

문의) 단장 장영순 213-255-6124

총무 목경순 213-500-6199

여주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환영한다”고 전했다.

문의) 단장 장영순 213-255-6124

총무 목경순 213-500-6199

여주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환영한다”고 전했다.

문의) 단장 장영순 213-255-6124

총무 목경순 213-500-6199

여주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환영한다”고 전했다.

문의) 단장 장영순 213-255-6124

총무 목경순 213-500-6199

여주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환영한다”고 전했다.

문의) 단장 장영순 213-255-6124

총무 목경순 213-500-6199

여주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환영한다”고 전했다.

문의) 단장 장영순 213-255-6124

총무 목경순 213-500-6199

여주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환영한다”고 전했다.

문의) 단장 장영순 213-255-6124

총무 목경순 213-500-6199

여주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환영한다”고 전했다.

문의) 단장 장영순 213-255-6124

총무 목경순 213-500-6199

여주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환영한다”고 전했다.

문의) 단장 장영순 213-255-6124

총무 목경순 213-500-6199

여주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환영한다”고 전했다.

문의) 단장 장영순 213-255-6124

총무 목경순 213-500-6199

여주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환영한다”고 전했다.

문의) 단장 장영순 213-255-6124

총무 목경순 213-500-6199

여주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환영한다”고 전했다.

문의) 단장 장영순 213-255-6124

총무 목경순 213-500-6199

여주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환영한다”고 전했다.

문의) 단장 장영순 213-255-6124

총무 목경순 213-500-6199

여주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환영한다”고 전했다.

문의) 단장 장영순 213-255-6124

총무 목경순 213-500-6199

여주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환영한다”고 전했다.

문의) 단장 장영순 2

임마누엘의 실증

사도행전 12:1-17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호

사도행전 12:1-17

1 그 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2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3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이라 4 잡으매 옥에 가두어 군사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 내고자 하더라 5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6 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있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7 훌연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照耀)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8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메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나님 천사가 또 가로되 걸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9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10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11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12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려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13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대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14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15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16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17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1. 임마누엘의 실증: 믿음과 순종

베드로는 갈릴리 해변 벗세다라고 하는 어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부로 살면서 생계를 유지해 가고 있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그물을 셋던 중 시몬 베드로의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 놓아 설교할 수 있도록 청하십니다. 설교를 마치신 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

씀하십니다. 그 때는 11시가 지나 정오가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므로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고 말하고는 말씀하신 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리 한즉 고기를 예운 것이 심히 많아 그들이 끊어지는지라”겠습니다. 더욱이 너무 많은 고기가 잡혀서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 도움을 청하고는 두 배에 가득 실어 배가 잠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인 경제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믿음과 행동을 취하는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에 예비하신 모든 것이 들어 있으며, 그 말씀이 믿어져서 행동으로 옮겨 순종했더니 그 말씀의 성과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수확을 거두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과 행함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약속의 조건을 허락받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는 생활 원칙을 하나님에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얻어지는 말씀 보장의 성과는 놀랄 정도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어지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실천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족함을 보장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2. 임마누엘의 실증: 회개와 성령충만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예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셨을 때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찌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마 26:33)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풀이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마 26:34)는 말씀대로 세 번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닦을음소리를 듣고 나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피투성이가 되신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제자된 신분으로 많은 이적 기사도 체험했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많은 체험을 했으면서도 현실에 치중하다 보니 예수님을 쉽게 망각하고 현실에 빠져들고 얹매여서 어리석은 불신앙의 폐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하여 보여주는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이후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한 번 설교에 삼천 명이 회개하고 성령받게 하는 기적과

도 같은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앉은뱅이를 일어나게 하는 기적을 행하기

도 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신성시하고 신으로 추대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갈 때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하여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견제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 주고 벨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안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행 3:13-16)고 말함으로 예전의 겹쟁이 베드로가 아닌, 신앙인격 수양의 차원이 한층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 임마누엘의 실증: 믿음의 기도

본문은 헤롯왕이 야고보를 잡아 칼로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했으나, 무교절이라 감히 사람을 죽일 수 없었기에 옥에 가두었다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무교절이 지난 다음 날 처형될 처지였습니다. 베드로는 군사들이 좌우에서 지키고 옥문도 지키고 서 있고, 손목과 발목이 쇠사슬에 묶여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날 밤 훌연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며 옆구리를 쳐서 깨워 급히 나가게 합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

고 환상을 보는가”(행 12:9)했습니다.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벨더라”했는데, 그 집에서 모든 성도들이 모여 합심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나와 베드로의 목소리만을 듣고는 달려 들어가 베드로가 왔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도리어 그 여자아이를 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어지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게 마련인데, 기도를 그토록 열심히 했으면서도 기도 응답에 대한 것을 못믿어서 의심하고 불신하는 폐단은 진정한 응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날 헤롯은 파수꾼들에게 베드로를 찾아 죽이라 명하고는 가이시로 떠나 있으면서 그곳 사람들이 헤롯이 하는 말을 “신의 소리로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행 12:22)고 아첨하는 말을 듣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이 죽으니라”(행 12:23)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임마누엘을 뜻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애처럼 하나님께 이끌리며 쓰임받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변화되어가는 세상에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지식을 배우고 갖고 닦아, 좀 더 많은 돈을 벌어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치중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성령받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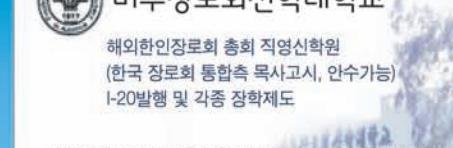
성은교회 장재호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기도원 연합신문			
해외 선교 설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오후 4시30분/동부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미국 신문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카페 설교	온라인 카페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크리스천 헬드	7면 설교	오프라인 카페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지구촌 어디서든 YOUTUBE에서 “장재호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킬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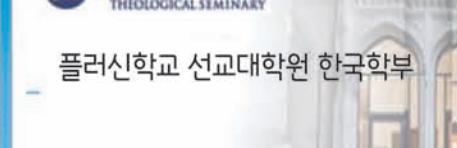
2015 미주기독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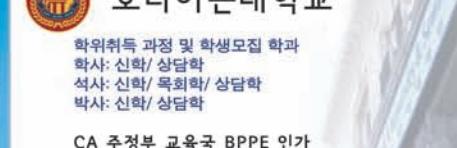
해외인장로회 총회 직교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신학원, 인수기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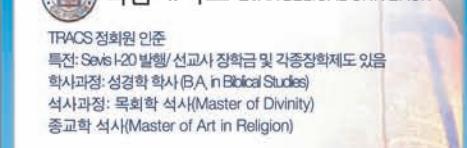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상담학
석사: 신학/목회학/상담학
박사: 신학/상담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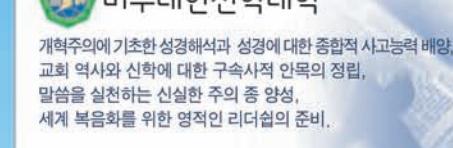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 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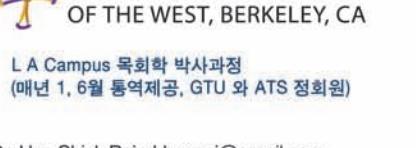
TRACS 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I-20 발행/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6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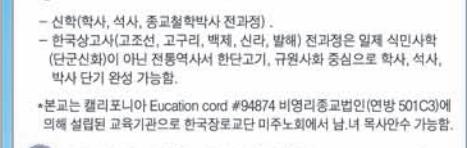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인물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쉽의 준비.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톤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통신신학 *한국상고사(한단고기, 규원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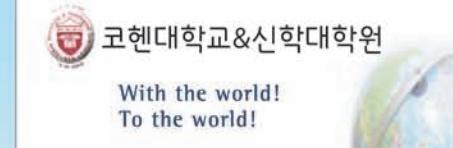
- 신학(학사, 석사, 종교철학박사 전과정).
- 한국상고사(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전과정은 일제 식민시학
(단군신화)이 아닌 전통역사서 한단고기, 규원사학 중심으로 학사, 석사, 박사 단기 완성 가능함.

*본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94874 비영리 종교법인(연방 501C3)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한국장로교단 미주노회에서 남녀 목사안수 가능함.



아메리칸 중앙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 www.acus-edu.us

email : acus-edu@hotmail.com acuslimjeongeu@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필업가능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피아노반주 가능한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현 '제일종은 예닮교회' 담임목사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ITC)
- I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쇼설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Pre-K/Kindergarten Pastor

유치부 전도사

Description: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GSPC) is located East of Los Angeles in the city of Rowland Heights. We are searching for a part-time pastor to shepherd our preK-kindergarten (age 3-6) department. We are searching for a shepherd who will love, model, and teach our young children toward our Lord Jesus Christ.

Qualification requirements are as follows:

1. Currently enrolled, or graduated from a Bible college or theology program at an accredited seminary. Verification WILL BE requested prior to hiring.
2.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Korean-American immigrant church and cultural context.
3. Fluency in English. Fluency in Korean is not necessary but this position requires at least some ability to communicate with Korean parents.
4. Previous children's ministry experience preferred but we will consider all applications.
5. A person of prayer.
6. Must have a family-centered ministry mindset, as parents are a crucial part of the ministry.

Primary duties are as follows:

1. Direct and lead Sunday worship as well as Bible study each week.
2. Direct and lead Friday night fellowship each week.
3. Create and execute annual plan and budget for the kindergarten department. The annual plan will include activities and events such as: VBS, prayer meetings, and any other fellowships.
4. Oversee and lead a staff of Bible study teachers.
5. Collaborate and work with other pastors in the Christian Education department.
6. Report to the Christian Education pastor.

Position

Part-time

Salary and Housing

\$1500/month

Benefits

none

A resume with picture and Testimony
or 3 letters of recommendation/must come directly to Clark Choi from the recommender via email or US mail
mp3 or a youtube link to one of your sermons it would strengthen your application.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EMAIL : clarkjdsn@yahoo.com (To. Pastor Clark Choi) Phone : 714.328.2866

사사(shophet, 士師)란 이스라엘 이 가나안을 점령한 후 왕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하여 살게 된 이스라엘 민족을 수백 년 동안 다스리던 정치기를 의미한다. 이들은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을 하였는데, 하나는 이민족을 대항하는 전쟁 시대의 군사 지도자요 평화 시대의 정치 지도자이다.

이처럼 사사라 불리던 사람은 12명 혹은 여사사 드보라와 동역한 바らく까지 더하여 13명으로 일컫는데, 이 12명은 대사사 6명과 소사사 6명으로 나뉜다. 대사사로서 강력하고 긴 시간 동안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옷니엘, 예훗, 드보라(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이고, 소사사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그리고 암돈이다.

12사사 중에서 첫 사사는 유다지파의 옷니엘로서 “하나님은 힘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는 갈렙의 가까운 친척인데, 분명한 것은 그의 용맹으로 거인들과

첫 사사 옷니엘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싸워 이기므로 갈렙의 사위가 된다. 가나안의 ‘뜨거운 감자’ 아낙자손과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는 선두에 서서 전쟁을 하여 기량 세벨을 정복한다. 40여 년 전 온 이스라엘 사람을 떨게 한 이 거인들과 싸워서 갈렙이 승리하고 또 이어서 옷니엘이 승리를 쟁취한다.

옷니엘은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 침입,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할 동안에도 다시 지도력을 복원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배나 악독한 자’라는 의미의 리사다임

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방 통치자 구산 왕 앞에서 큰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 옷니엘은 구산 리사다임 왕을 공격하여 메소포타미아 세력을 쓰아내고, 해방자가 되어 정착을 위한 전쟁을 마무리한다.

첫 번째 사사 옷니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그가 사는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유지한다. 하나님은 지도자 옷니엘을 통하여 나리를 회복하신 것이다. 한 명의 지도자는 이처럼 중요하다. 옷니엘은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난 구원자이다. 억압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자, 하나님은 옷니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 그는 메소포타미아의 왕도 물리치는 용사가 된다. 옷니엘은 용맹한 사람, 성령충만한 사람,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기도를 쉬지 않으므로 좋은 지도자를 얻어 평강을 누리는 미국과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들이 속한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

어머니 서랍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오만가지를 다 쓸어담고 계시는 서랍이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철없는 자녀들이 있는 한 우리 어머니 허리는 줄어들 것 같지 않다.

어느 날, 정리 한계를 벗어난 책상같이 망가진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책상 위의 쓰레기들을 말끔히 청소해 주신 분이 계셨다.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당신의 서랍 안에 담아 깨끗이 정리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다.

주님의 서랍은 마치 어머니 서랍 같았다. 나의 지저분한 모든 것을 쓸어 담은 서랍 안에서 깨끗해지고 나아가 가지런히 정리정돈되어 있는 것이다. 불효자를 효자 효녀되게 하고 철없는 남편을 영웅으로 만들어내는 어머니의 매직 서랍 같았다. 그리고 참, 정말로 무지무지 감사한 것은 주님의 서랍에는 우리 어머니 서랍도 담겨 있는 것이다. 없는 줄 알았던 어머니의 비위가 바로 주님의 서랍에 담겨 있었다. 주님 앞에서 우시는 어머니의 눈물이 비위 되어 주님의 서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엄마



현순호 목사
실리콘밸리노인선교회

하는 곳에서 극적으로 몇 초간 엄마를 만날 수 있었다. 엄마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였다. 키는 줄었고 등은 구부러지고 머리는 반백으로 변했다. 그렇게 곱던 얼굴에는 주름살이 너무도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사랑하는 자식이 없어지면 그 자식을 찾을 때까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찾아내는 엄마의 사랑과 끈기.

나는 엄마에게서 삶의 철학을 배웠다. 어디가나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교훈을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그 비유인즉, 어느 날 까마귀가 까치에게 물었다. “왜 사람들은 나만 보면 둘을 던지고 쫓아내느냐? 왜 까치인 너를 보면 환영하느냐? 그 비결을 알려 달라”고 하자 “그래, 그 비결은 네 목소리를 바꾸는 거야! 꽉 꽉 하는 네 목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져. 나는 각각 하며 꼬리를 흔드는 거야! 그러면 오늘 반가운 손님이 오겠네 하고 좋아해. 그러나 네 목소리를 바꾸라”고 했단다. 맞다. 남들에게 도움을 주면 칭찬 받으며 살 수 있다고 했다. 내 평생 이 교훈이 나의 좌우명이 되었다.

엄마는 천둥소리는 못 들어도 애기 우는 소리는 듣는다’는 말이 있다. 한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과 사랑을 주면서 기뻐했던 엄마, 그 사랑을 깨닫고 보답하고자 할 때는 이미 옆에 계시지 않은 엄마가 보고 싶고 더 그리워진다.

왜 나이가 들수록 어머니가 더 그리워질까? 엄마의 치마자락을 불잡고 떨어지면 죽는 줄 아는 나이도 아닌데.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서 참 사랑과 애틋한 정을 느껴보지 못하고 실망만 쌓여가게 되니 대가 없는 희생과 사랑을 보여준 엄마가 더 그리워지는 것이라.

오늘 내가 이만큼이라도 된 것은 엄마의 희생이 있었고 그 엄마에게서 받은 교훈이 있었기 때문이리라. 한 생명이 태종에서 임태될 때 필요한 자양분을 공급해 주신 엄마, 엄마 자신은 시간이 흐르면서 앓고 서고 눕고 일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얼굴이 검버섯으로 덮이지만 사랑의 열매인 한 아기가 자신의 분신으로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며 감수하신 엄마, 나는 배웠다. 한 생명이 자라면 누구인가의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약골이 되어 지나가는 감기는 물론, 열병, 장질부사, 저혈압 등으로 아픈 날이 너무도 많았다. 오죽하면 학교 문앞까지 엄마가 엄마 데려다 주었을까. 이제 열살을 막 넘긴 나를 친척집에 맡기고 멀리 떠났을 때, 그 마음은 또 얼마나 아팠을까! 떨어져 있는 아들도 엄마를 자나깨나 그리워했지만 엄마의 가슴은 더 타들어갔을 것이다.

몇 년 후 다시 만났을 때 엄마의 기쁨은 잠깐이고 다른 걱정이 생겼다. 나는 이상한 아이가 되어 있었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용해

뼈, 골수 영양공급

권장소비자가격: \$184/병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알카리성

산성	중성	셀라케어
3.5	6.0	
7.0	8.5	
9.0	9.5	
		10

셀라케어 제품은 6년 경작후 1년 휴지기를 지키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엄선하여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카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셀라케어 효능사례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발작 · 자폐 · 무감각 증세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 간질, 발작 증세, 자폐증에 무감각증으로 19년 동안 고생중에
셀라케어 복용후 많이 호전되었음

관절염 · 변비 · 생리통

순기력이 심하게 아파 소염진통제로도 잘 인들었으나 셀라케어 복용 후 통증이 가라앉고
변비도 없어졌으며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중풍 · 마비 · 당뇨

15년동안의 당뇨합병증으로 고생 중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후 얼굴의 마비가 7
개월만에 많이 호전됨.

일본 원자력 피해

선천성 뇌하수체호르몬 분비가 안 되어 하반신 마비, 간질, 정신병약, 비정상 성장에서
셀라케어 2개월 복용후 검고 말함. 토요다 유이토 2세(일본 찌바) 090-9934-2333

자폐증

7세 남자아이가 자폐증으로 셀라케어 복용후 호전됨.

지민 엄마(미국) 616-822-4627

혈소판

3살 반부터 혈소판 수치가 50-29 까지 떨어졌다. 셀라케어 복용 후 한달 반만에 정상수치
(100-400)로 돌아옴.

김예은(7세, 미국) 213-798-8767

방광암 · 임파선암

방광암 말기에서 임파선을 타고 전신전이, 항암치료, 방사선치료로 한계방광적출, 1개월시한 셀라케어 1년
복용, 임세포 전자 보이지 않는다고 의사진단. 나카지마상(일본 군마경 다키사카) 080-3556-1951

간에 생긴 종양

셀라케어 6개월 복용후 없어짐. 참고로 고비아시 어머니가 암사임.

고비아시(32세, 일본 요고하마)

녹내장

오래된 녹내장으로 고생중에 셀라케어 2달 복용후 안과에서 정상으로 검진됨.

빅토리아(59세, 일본 통경) 8180-1330-2069

췌장

췌장에 물후. 셀라케어 3달 반 복용후 없어졌다고 의사가 진단함.

58세 목사 사모님(미국 TX) 972-620-2900

식도염

심한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다가 셀라케어 복용후 거의 호전됨. 부기, 위장, 변비,
여드름, 피부 모두 효과 봄.

이은선(미국 MI) 616-822-4627

간질

16년동안 매일 여라차례의 간질로 인해 전혀 사회에 대한 경험을 못하다가 셀라케어
복용후 건강이 호전되어 결혼도 함.

Eunice Park(미국) 213-604-1992

아토피 · 건선

6년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 1개월후부터 피부가 깨끗해지며 잠도 잘자고
키도 많이 커졌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Esther Yang(10세, 미국) 213-215-6991

파킨슨

셀라케어를 파킨슨약(Sinemet)과 병행해서 복용하며 떨리는 증세와 몸의 허약함이
반전되었고 50% 좋 아져 18시간 비행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옴. John Kim(미국)

심장

의사로부터 심장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는분의 권유로 셀라케어 2달 복용후
혈액이 맑아졌고 1년 복용후 수술을 안하게 됨.

Mr. Yoon(58세, 미국)

백혈병

직업 간호사로 지내다가 갑자기 백혈병 검진을 받게 되고 셀라케어를 1달 반 복용후
의사로부터 백혈구 정상으로 진단받음.

Petra(미국) 708-296-2085

반신불수 · 육창

10년이 넘도록 흐르자서 대소변이 불가능했으나, 셀라케어 3일 복용후 아들도 알아보고
복용 6달 후부터 물라보게 좋아져 소금씩 걸음.

박경숙(82세, 미국)

전립선암 · 부정맥

소변 힘들고 방에도 7번씩 소변을 보았으며,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하였을, 셀라케어 2달
복용후 많이 호전되었으며 혈액검사 결과가 계속 좋게 나옴. Tomas Park (92세, 미국)

심한알레르지 · 하지정맥

코막힘과 콧물로 냄을 세우는 고통 중 셀라케어 3일 복용후 호전, 심한 심장압박과
하지정맥까지도 호전됨.

정수자(61세, 미국) 323-774-1138

비만 · 우울증 · 애뇨증

여러로부터 심한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LB였으나 셀라케어 2달 복용후 살이 빠지기
시작. 현재는 130LB로 유지됨.

Sam Yang(11세, 미국)

자기 면역 질환

회귀병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상실, 지속적인 증기,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차병으로 셀라케어
3일 복용후 혈액수치가 정상으로 나오고 1달 복용후 정상 판정받음.

Mrs. Kwak(미국)

방광암 · 전립선

방광암 진단을 받고 셀라케어 6개월 복용후 깨끗해졌다고 함.

토요타 이찌로(일본 후지오카) 0903-146-0007

약물중독 · 우울증

햇빛재단(미국) 오네시모 선교센터(미국)

강아지 백혈병 · 피부병

강아지가 백혈병과 피부병에 고생 하던중 셀라케어 단 2회 먹인후 치료가 필요없게 됨.

김민숙 213-760-5699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세트

-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 가능합니다.

유태인 특수영양제 - 셀라케어

SELLA CARE®

건강과 성경 이야기 52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음식을 먹으면 위장에서만 소화를 시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할수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몸의 어느기관이 소화촉진을 도와주는가를 보겠습니다. 우선 음식을 입에 넣으면 이(치아)가 음식물을 썹어서 잘게 나누어주고, 혀는 음식물을 침과 섞어서 걸쭉하게 만든 다음에 목구멍인 식도로 음식물을 밀어 넣습니다. 음식물을 받은 식도의 벽은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하는 이완, 수축운동을 매우 강력하게 반복하면서 음식물을 위로 내려 보냅니다. 위는 조그만 자루 모양으로 위쪽은 식도, 아래는 십이지장과 연결되어 있고, 위장의 안쪽은 소화를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주름이 많이 잡혀 있고 신축성이 뛰어나서 어른의 경우 약 1.5~2리터의 음식물이 들어가는데, 이곳에서 위액이 나오면서 꿈틀거리는 운동을 통하여 음식물을 더 잘게 부순대 단백질을 분해시키고, 세균을 죽이고 음식물이 상하는 것을 막으며, 음식물이 이곳에서 보통 4-5시간 머문 다음에 십이지장으로 내려갑니다. 십이지장에는 지방의 소화를 돋는 쓸개와 산성을 알칼리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이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곳의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황달과 당뇨에 걸리게 됩니다. 이곳을 통과한 음식물은 약8미터(28피트)나 되는 소장과 대장 즉 작은창자와 큰창자를 통하여 소장에서 물을 분비하는 것을 막고, 대장에서는 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서 물은 영양소의 흡수를 위해 많은 모세혈관이 모여 있으며, 이리저리로 꿈틀거리고 있고, 소화된 음식물은 용털을 통하여 소장에서 흡수되어 몸의 각부분으로 운반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남은 것은 큰창자를 통하여 물은 흡수되고 치꺼기는 항문을 통하여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이렇듯 간단하지만은 않은 소화기관의 어느 한곳만이라도 제 역할을 충분히 할수없게 된다면 소화불량은 물론이고 몸에 이상이 생겨서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소화기관에 가장 좋은지를 성경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이 잘 먹고, 잘 배설하고, 잘 잠을 수 있는지를 보면, 음식을 소화시키는 장기인 소화기관은 몸에 이상이 생겨서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소화기관에 가장 좋은지를 성경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이 잘 먹고, 잘 배설하고, 잘 잠을 수 있는지를 보면, 음식을 소화시키는 장기인 소화기관은 몸에 이상이 생겨서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수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권해드립니다.

이제서 나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다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안타까운일이 발생됩니다. 11장 1절로 1. 솔로몬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헛 여인이라 2. 여호와께서 일찌기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가 정녕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9절로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찌기 두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10. 이 일에 대하여 명하시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11.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께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이제서 나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후에 중요한 결정에서 노인들의 조언을 따랐으면 좋았을텐데, 마음이 높아진 결정을 하여서 즐기에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일로 인하여 몇백년간 남북이 서로 싸우게되는 비극과 국력의 낭비로 인하여 모두 망하게 됩니다. 이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숭배, 점을 본다든지, 신년운수를 본다든지로 시작하여 사람이 만든 것에 절을 하는 어리석은 행위는 본인과 자손들을 위하여 절대로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소화기관을 만들어서 잘 먹고, 잘 배설하고, 잘 잠을 수 있는지를 보면, 음식을 소화시키는 장기인 소화기관은 몸에 이상이 생겨서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소화기관에 가장 좋은지를 성경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이 잘 먹고, 잘 배설하고, 잘 잠을 수 있는지를 보면, 음식을 소화시키는 장기인 소화기관은 몸에 이상이 생겨서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수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권해드립니다.

무료건강상담 문의 213-435-9600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GMP생산품입니다. www.sellacare.com

본사(LA)	213.435.9600	뉴서울호텔 (팔달)	213.386.5310	플러튼 내처영양센터	714.690.0120	토랜스 한남체인(건강마을)	310.619.7758
시온국	213.344.9730	LA별문 마틴약국	213.382.9718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뉴욕, 뉴저지	



워싱턴주 한인장로회 주최 제 19회 워싱턴주 성가 대합창제가 은혜롭게 열렸다.

제 19회 워싱턴주 성가대합창제 성료

서북미 부흥 위해 '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것'

워싱턴주 한인장로회(회장 장석태 장로)가 주최한 '제 19회 워싱턴주 성가 대(大)합창제'가 지난 3일, 시애틀형제교회(담임 권준 목사)에서 열렸다. 합창제는 세대와 직분을 넘어 서북미 지역 성도들이 참가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었다.

합창제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서북미 지역 한인 교회와 합창단이 참가해 서로 받은 은사와 기량을 마음껏 펼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는 축제의 장이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아낌없는 박수를 통해 서로를 축복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다.

김정태 장로의 사회로 진행된 합창제는 워싱턴주 한인장로성가단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첫 시작의 문을 열었으며, 이어 타코마 새생명교회, 훼더럴웨이선 교회, 안디옥장로교회, 타코마 제일침례교회, 시애틀 온누리교회,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올림피아 한빛장로교회, 시애틀 형제교회가 차례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다. 또 피아노 트리오와

워싱턴주 웨버 양상불이 특별찬양으로 합창제를 끝내 큰 박수를 받았다.

회장 장석태 장로는 "워싱턴주 성가대 합창제는 서북미 성도들의 화합과 연합의 장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오늘 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지역교회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서북미의 부흥을 위해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자"고 독려했다.

합창제 전 진행된 예배는 오남석 장로의 사회로 시애틀 기독교교회연합회 회장 김병규 목사가 "세월은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모두에게 같은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타난다"며 "지금 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자"고 전했다.

한편 '워싱턴주 성가대합창제'는 19년 전 워싱턴주 한인장로회 회장 황동규 장로와 임원들이 예수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비전을 품고 첫 회를 시작했다.



연합기도성회 감사 한기홍 목사, 김춘근 장로, 신승훈 목사

6.25맞이 대규모 연합기도성회

영적 부흥과 대각성 위한 기도회로 개최

워싱턴주 기독교회연합회는 워싱턴 주 지역 각 목사회와 함께 오는 6월 미국과 워싱턴주의 영적 부흥과 대각성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해 주목된다.

오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되는 이번 집회에는 남가주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 자마 설립자 김춘근 장로, 남가주 주님의영광교회 신승훈 목사가 각각 강사로 나서서 6.25 등 족 상잔의 아픔을 기억하고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특별 집회로 인도할 예정이다.

미국과 대한민국의 영적 부흥과 대각성을 위한 워싱턴주 기도회는 타코마, 훼더럴웨이, 시애틀 세 곳에서 매일 한 차례씩 나누어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시애틀 기독교회연합회는 이번 기도성회를 위한 두 차례 기도모임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21일과 6월 23일 모두 오전 10시 30분에 뉴비전교회에서 기도모임을 열 예정이다. 김브라이언기자

만능 전도일꾼 세우는 전도훈련학교

13주 과정 마치고 잃어버린 영혼 향한 마음 되새겨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마가복음 16:15)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담임 정인수 목사) 전도훈련학교 6기 수료식이 지난 7일(목) 저녁 7시 30분 커뮤티니센터에서 있었다. 이번 전도훈련학교는 지난 2월 12일, 시작해 13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총 17명이 수료했다. 전도훈련학교는 전도실습과 나머지 학과부부로 구성되며, 성도들에게 전도의식을 고취하는 훈련을 통하여 언제 어느 곳에서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하게 하는 전도 훈련 프로그램이다.

전도학교 수료자 김은경 집사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전도학교로 인도하셔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순종했다. 그리고 전도는 전략이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럴 때 우리의 말과 마음을 통해 성령님께서 자연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을 알게 되었다"고 간증했다.

선우인호 집사는 "선교지에 다녀온 후 전도에 대해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이번 전도훈련을 받게 되었다. 훈련을 통해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을 잘 이해시키고 또한 그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전도를 위해 중요한 사실임을 새롭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말씀을 전한 정연권 목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의 빌립보서 말씀을 인용하며 우리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전도는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할 수 있다. 첫째는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고, 둘째는 교회로 인도한 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양육하고 세우는 일이다. 복음으로 무장하는 전도팀이 되길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윤수영 기자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후 5:20(월-금)
점심예배 오후 2:22 새벽예배 오후 6:20(토)
주일 비정기예배 / 토요예배 171와 버몬트 코너-100 New Hampshire
주중종교 LAS피안학교(기)와 라파يت 코너-320 S. La Fayette Park

김기섭 담임목사

연재선 담임목사

LA 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끌어들이기 위해 이민자들을 치유하며 선교령원을 순종하는 교회

버몬트학교 (1기)와 버몬트 코너-152 N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 (213)386-2233 / www.Lasarang.com

김기섭 담임목사

연재선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박성도 담임목사

LA 선교교회

내 지성을 넓혀라, 믿음을 성장하고, 사랑으로 하나님에 소망증에 기뻐하자

35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435-0380, (213) 435-0094 / www.missionla.org

박성도 담임목사

한천영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구역모임 오후 7:30
오후 천양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후 6:00 혼연섭 담임목사

구인성장로교회

실천하는/전도하는/헌신하는 산양 공동체

4545 W Washington Blvd, LA, CA 90016 T. (213)428-7878 F. (213)992-0788 / kuinhyo@hanmail.net

혼연섭 담임목사

엘리야 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증명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진유철 담임목사

한기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1:00 서건오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1:00 EM 오후 1:00
한인행복부 오후 1:30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기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lakwpc.org

서건오 담임목사

박현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김광삼 담임목사

정우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성경공부부 주일오후 2:00 김요섭 담임목사

남가주리디미어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737-3538 / www.laredemer.com

김요섭 담임목사

이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성경공부부 주일오후 2:0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김경렬 담임목사

신현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조인수 담임목사

김세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정장수 담임목사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6:00(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류종길 담임목사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6:00(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예배, 소. 친. 초. 정신의 훌륭한 교회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이명수 담임목사

민종기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월-금) 10:00 유일한교회주일오전 10:00 새벽기도회(월-금) 11:00 이명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LA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성령전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8:00

이회철 담임목사



갓스월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후 9:45
3부예배 오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세번기도회 오후 5:30(월-금)
오후 6:00(토)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세번예배(화-금) 오전 5:30
(화) 오전 6:00
4부예배 오후 12:50 수요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 sunhanchurch.com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교회

1717 S.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1:00
창대교회 사립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후 11:45
3부예배 오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은혜로운 제자되어 사랑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세번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후 6:00(토)

양성필 담임목사
수요예배 오후 8:00

이춘준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2015년 표어 : 선과 악인 모에게 빛을 비우는 교회(마5: 45)

1. 민족을 넘어서 2. 영광을 넘어서 3. 국가를 넘어서

T. (760) 636-2675 / palmsprings.onmam.com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사우스 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민족 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11:00
세번기도회 오전 5:30(월-금)

주일예배 오전 9시 (자성전)
주일 11시 (본성전)
분성전 : 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자성전 : 667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목 담임목사



나눔 장로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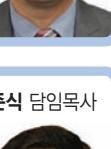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가디나선교교회

1044 West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김영구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열린예배 오후 2:00
중고등부예배(EM)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EM 1부예배(EM) 오전 1:00
2부예배(EM)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세번기도회(EM) 오후 6:00

정상용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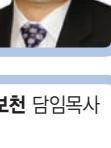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 787-1004 / shalomch.org

대홍장로교회

명풀까지 내 즐인이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권영국 담임목사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세번기도회(EM) 오후 1:00
3부예배 오후 2:15
4부예배(EM) 오후 10:00
5부예배(EM) 오후 11:00

김준식 담임목사



드루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uschurch.com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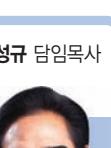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번기도회 오전 5:30(화-금)

정예우예배 오전 10:00
Toddler-Youth 오후 10:00
3부예배 오후 11:30
EM예배(EM) 오후 10:00(장년)
오후 2:00(청년)
KM예배(EM) 오후 3:00(장년)

김바울 담임목사



토랜스조은교회

www.torre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철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최종용 담임목사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성공공부/새교우반
세번예배 오전 7:00(토)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세번기도회 오전 5:30(화-금)

EM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예배(EM) 오후 2:00
중고등부예배(EM) 오후 11:00
금요예배(EM) 오후 7:30

류준영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불하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곽근 담임목사



온혜와 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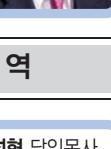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벤츄라카운티장로교회

'예수의 심장으로 섬기는 교회' (별1:8)

730 W. 6th St. Oxnard, CA 93030
T. (805) 483-7009

최혁 담임목사



주 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el.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1부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2:00(분당)

세번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후 6:00(토)

세번예배(EM) 오전 10:00
4부예배(EM) 오후 12:00(분당)

최호년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세번예배(EM) 오전 5:30(월-금)
오후 6:00(토)

류준영 담임목사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행사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일본 CBMC 제15회 국가만찬기도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협동체’ 주제로 열려

일본CBMC가 ‘제15회 국가만찬기도회’를 지난달 24일 동경 게이오프라자 호텔에서 개최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협동체’를 주제로 열린 이 기도회에는 정·재·교계 인사들과 일반 성도 약 400여 명이 참석해 일본과 세계의 평화, 정치·경제·교회 등 다양한 과제를 놓고 마음을 모아 기도했다.

기도회에서는 이케나가 준 가톨릭 오사카대교구 명예대주교의 개회기도, 이시바 시게루 지방장생담당대신의 인사말에 이어 히로세 카오루 도쿄기독교학원 이사장이 하나님 나라와 협동체에 중점을 두고 ‘하나님께서 크리스천을 통해 무엇을 행하려 하시는지’에 대해 전했다.

히로세 카오루 이사장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계”라며 “어떤 이가 기뻐하기 위해 또 다른 어떤 이가 슬퍼하고, 어떤 이가 살아가기 위해 또 다른 어떤 이가 죽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다. 모두가 함께 살고 기뻐하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라고 전했다.

그는 우치무라 간조와 가가와 도요히

코 목사의 사상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실현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삶이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며 “땅 위의 모든 것을 살리는 사역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것을 지금 이라도 회개하고, 크리스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 중에는 제임스 D. 펀스탈 CBMC 국제회장과 하시모토 토루 일본정책투자은행 대표이사, 미네노 타츠히로 요도 바시교회 주관 목사가 등단, 성경 위에 손을 얹은 뒤 빙곤과 격차 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경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김경철 한국국가조찬기도회 회장, 천 웨이완 대만국가조찬기도회 회장, 이시바시 히데오 일본기독교단 의장이 일본과 주변 국가와의 우호, 아시아 및 평화를 위해, 오가와 조쿠미치 야마토갈보리 채플 주관 목사가 하나님 나라의 협동체를 이루는 크리스천이 되도록 기도했다. 행사는 일본복음동맹(JEA) 이사장 나카다이 타가오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강성현 기자



미국 콜트교인들이 백악관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크리스천포스트

이집트 기독교인 5명, IS 모욕 혐의로 체포

교사와 학생들의 기도 영상 관련, 성난 무슬림들이 고소

이집트 경찰은 최근 기독교인 5명을 체포했다. 이들이 콜트교회 교사와 더불어 기도하는 동영상과 관련, 무슬림들이 “IS를 모욕했다”며 신성모독혐의로 이들을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5일 폭스뉴스는 이집트 북부 민족주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표적이 되어왔는지 집중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민족주의자들은 “동영상에서 콜트교회 학생들과 교사가 IS를 ‘야만적인 이슬람 테러단체’라며 신성모독죄를 지었다”고 주장했다. 화난 군중들은 학생 5명이 살고 있는 집 주변을 둘러싸고 ‘이슬람을 모욕했다’고 외쳤다.

군중들은 학생들의 집에 돌을 던지고, 부모에게 이들을 경찰에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교사는 경찰에 의해 체포됐고, 4일간 조사를 받았다.

콜트교회 활동가인 이나 타벳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다른 기독교인들과 함께 여전히 경찰서에 구금돼 있다고 밝혔다.

타벳은 “5명의 학생들이 신성모독 및 이슬람 모욕 혐의를 받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폭력 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여러 사건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했다.

기독교박해감시단체인 국제기독연대 (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의 중동 담당자인 토드 니나엘스(Todd Daniels)는 6일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집트 사법체계의 부패로 인해 아이들이 정역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야에서 5명이 신성모독혐의

로 체포된 이번 사건은, 이집트가 얼마나 극단주의 이데올로기로 기울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공개적으로 이집트 시민들을 참수한 IS’를 모독했다는 이번 동영상은 아직 대중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았으나, 이로 인해 5명이 수감되고 장기간 징역을 살 수도 있다. 이집트 대통령의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인들은 여전히 박해에 노출돼 있으며, 이는 사회적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법적 수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집트의 한 기독교인이 페이스 북에 두 명의 이슬람 학자가 논쟁하는 내용의 영상을 공유해, 신성모독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민주주의수호재단(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의 오렌 케슬러 박사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집트 대통령이 극단주의를 단속하기 위한 관점에서 인정받을 만한 일들을 수행하고, 극단주의의 문제에 대해 더욱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반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종교적 담화로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단속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케슬러 박사는 “이집트 정부가 기독교 공동체를 상대로 한 공격에 연루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기독교 인구를 보호하는 일에 큰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사건들인 경우가 많다. 경찰이 교회를 상대로 한 공격의 기미를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건들이 많다”고 했다.

강해진 기자

O.C./일반 지역

김호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5-6402,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한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찬양부 오전 9:30, 11:30
한국어찬양부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금) 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오병의 담임목사

건강한 교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
18523 Arline Ave. Artesia CA 90701
T. (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종교동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일주일부 예배 오후 1:30
유아동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업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흘러지는 교회
1200 W.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 (562) 691-0691 F. (562) 691-0698 / nachimban.org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 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6:00 본당
2부예배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기도 저녁 8:00 본당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하귀암 담임목사

놀워연합감리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 (562) 802-4959 C. (714) 308-7038 / usa8291@gmail.com

안창호 담임목사

안창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30 영어찬양예배 주일 9:00p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 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유아유치부, 유아동부, 종교동부)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점은이예배)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 502-4923 / www.disciplecc.org

박일룡 담임목사

로뎀장로교회
그리스도의 향기 있는 교회
1759 W. Broadway Anaheim, CA 92804
T. (714) 956-7640 / (714) 956-5845 / WWW.RODEM.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중교동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org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 10:30 AM Sunday School (All ages) 새벽예배 : 5:30 AM (화~금)
11:45 AM Adult Service 6:30 AM (토)
1:30 PM English Service 6:30 AM (일)
금요모임 : 7:20 PM (성경 66권 책별성경공부)

이승필 담임목사

새로운 교회
이새내를 본받고 마음을 새롭게 할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分辨하는(12)

새로운 교회

주일대예배 1부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교동부 예배 오전 11:00
대학생년부 예배 오후 1:30

홍성준 담임목사

얼바인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 769-9628

권혁빈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예배 오후 12:30 교육부 예배 오후 12:30

김용철 담임목사

얼바인중앙교회
오픽 그리스도만 비라보자
1842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714) 309-7551 Pastorykim@yahoo.com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7:00
EM예배 예배 오후 12:45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금요강요예배 오후 7:30

김민재 담임목사

예 친 교 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 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후 5:30(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최국현 담임목사

한국의 빛 교회
부설: 이스라엘 알리야 선교회-성지순례, 정탐전문
4000 Green Ave., Los Alamitos, CA 90720
T. (714) 351-0124 (Cell), (562) 475-4323 (Church)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집회 오후 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삶을 바꾸는 교회 세례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 빛 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투병생활이 필요없는 치유의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천연 치료제 개발!!

www.SuperMirapharm.com

“100% 천연 면역조절제”
“100% NATURAL IMMUNOMODULATOR”

미라팜-22

MIRAPHARM-22

22세기형 생명공학적 첨단 의약품으로 탄생했습니다.

미국 FDA에 NDC (OTC Drug) 일반의약품으로 인증 등록됨
일반의약품 등록번호 NDC No.: 58912-2001-1



FDA 직접 확인해보기
NDC Number를 선택하시고
58912-2001-1로 검색

2014년 한국은 면역조절제 개발이 국가적 신약개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른바 생물학적 면역조절제 개발 프로젝트이다.

인간의 질병의 근본 원인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목표이다.

기존 면역조절제(화학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생명공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라서 국가적인 개발 과제로 삼은 것이다.

그런데 본사는 이런 첨단 의약제조기술을 25년 전부터 연구하기 시작하여

생체응답 조절작용제로서의 면역조절제인 미라팜-22를 미국 FDA에

일반의약품으로 등록하고 출시하고 있는 것이다.



90cap. 300mg/cap. Made in USA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MIRA PHARM -22

Mirapharm-22는
Miracle Pharmacy(기적의 약)의 합성어이며
22는 22세기형 첨단신약을 뜻합니다.

~~\$600~~ \$400/1병 (한달분)

100% 천연 물질로 만들었으며 25년간의 연구와 비임상을 거쳐 효과는 확실히 검증이 되었고 부작용의 염려가 없습니다.

- ◆ 14년간의 연구와 11년간의 임상 끝에 미국 FDA에 Human OTC Drug 일반의약품으로 등록됨
- ◆ FDA 등록 연구소에서 성분 분석 테스트 결과, 영양 함유물 및 식품으로 안전하다고 인증됨
- ◆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면역결핍에 의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약으로 등록 명기되어 있음.
- ◆ 친환경 100% 천연 유기물질을 핵심 재료로 생명공학적 공법으로 특수 가공한 차세대 신개념의 첨단 천연의약품인 면역증강 및 면역조절제
- ◆ 면역증강제로도 치유되기 어려운 자가면역질환들을 면역조절제로써 자가치유할 수 있는 첨단 의약품
- ◆ 어떤 면역증강 건강보조식품보다 탁월한 효능을 입증받아 일반의약품 NDC OTC Drug로 등록되었으며, 수많은 난치병들 중 대부분은 자가면역질환으로써 현존하는 약으로는 치료가 어렵지만 면역조절제인 미라팜-22는 이런 난치병들을 자기와 비자기를 인지할 수 있도록 면역세포에 작용, 항원특이적 또는 비특이적으로 면역반응을 증강시켜 면역계에 작용하여 면역반응을 촉진시킴으로써 면역을 스스로 조절해 주면서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줌

최근에 피부암 치료제 옵디보가 출시되었습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자불해야 하는 약값이 \$143,000입니다.
그러나 미라팜-22는 피부암은 물론 각종 암 치료제입니다. 한 달분 한 병 특가 \$400이며 임상 치료 효과도 더욱 높습니다.

Mirapharm-22 복용 체험담 요약본

- (60대 남) - 대장암 말기로 1년6개월 동안 매일 혈변, 수술 일절 안하고 항암제도 전혀 안받고 오직 미라팜-22만 하루에 6알 복용. 그 후 암덩어리가 자주 빠져 나오기 시작, 50일이 경과한 후부터 일절 혈변이 없어 한 달(11월7일)째임. 건강해지면서 피곤이 없어지고 식욕도 돌아옴. 저희 업소가 있는 몰 안의 경비원으로 근무중
- (50대 여) - 쇼그렌증후군 7년이상 눈물, 침 분비가 안되는 불치병. 7년동안 삼성병원 치료받고 있어도 효과 전무함. 재력 충분하여 현대의학, 어떤 대체의학도 치료불가능 체험함. 미라팜 5알씩 복용 후 2주일쯤부터 편안한 느낌. 28일 후 침침이 고임. 4개월 지나서 백혈구 수치 4000이 넘어 정상 회복됨. 과거 큰 사업들 다 접었는데 지금(11월7일)은 더 확장하면서 급속도로 호전됨.
- (47세 여) - 구안와사로 얼굴 반쪽이 찌그려서 은행도 그만두고 1년 동안 밖에도 돌아다닐 수가 없다가 3병 복용 후 완전히 정상이 되어서 다시 은행에 다닐 준비하고 있어 행복하다 하심.
- (9세 여 베트남) - 백혈병으로 고생 중 2병째 먹고 딱딱했던 두피가 밀링밀링해지기 시작해지면서 회복 중. 어머니가 채널 57-1 베트남 TV 방송에 인터뷰 자청하심.
- (56여 베트남) - 몇 달 복용 후 목에 갑상선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간암 세포도 갈수록 약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음.

- (26 남 베트남) - 날 때부터 자가면역 알러지 질환으로 피부가 길라지는 난치병에서 미라팜-22를 이를 먹고 즉시로 회복되어 건강해져 그 어머니가 베트남에 방문하여 베트남 정부병원 닥터 16명과 3일간 미라팜-22 의약품 미팅을 가짐.
- (84세 여) - 만성수화으로 인사불성에 장애준비하라 의사 권유에 미라팜 먹칠 먹고 간호사도 놀라는 가운데 의사회복하고 곧 바로 손주와 직접 전화통화함.
- (60대 여) - 의료사고로 뇌사판정 후 장례 준비 권고 3회 받고 마지막 기회로 죽어도 좋다고 서명한 후 미라팜-22 선택. 위장관을 설치하여 위장에 넣고 18시간 후에 의식을 회복함. 유튜브에서 “뇌사 미라팜”을 검색하면 나옴
- (50대 여) - 한 병 드신 후 파킨슨병으로 고생 중 팔 움직임이 좋아졌다.
- (20대 여) - 한 달 후 생리불순 해결되었다.
- (70대 남) - 한 병 드신후 암 수술로 머리카락이 없었는데 검은 머리가 다시 난다.
- (50대 여) - 하루 3캡슐로 5일 복용후 가슴의 통증이 사라졌다.
- (50대 여) - 밤새 잠을 못 잤는데 10일 후 편안하게 자면서 낮잠도 잔다.

(이상은 미라팜-22를 복용하고 체험받은 최근의 사례에 불과하며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례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계속해서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인터넷 홈쇼핑 www.KBSmal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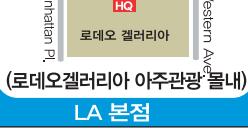
hq 헬스 / HQ 바이오텍, INC L. A. 본점 (213)365-2100
hq 헬스 / HQ 바이오텍, INC 세리토스 직영점 (562)760-2359

LA 본점 :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직영점: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90701



월~금: 10am~7pm, 토:10am~5pm



(로데오갤러리아 아주관과 플내) LA 본점

South St.
Norwalk Blvd
Bloomfield Ave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세리토스 직영점

네팔 주재 한국선교사협의회- 사랑과 헌신으로 구호활동 펼쳐

14개도 108개 마을 피해 주민에게 구호물품과 사랑 전하며 소망 심어줘



한인 네팔 선교사들이 선교사협의회 재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네팔 주재 한국선교사협의회

“오늘(11일) 신두팔족 빵그레팔 가비스와 320가구 중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0가구에 텐트 35개, 모포 100장, 모기장 100개, 겸정 스퍼지 매트리스 50m 4개 를 전달하고 카트만두로 출발합니다. 이 마을은 320가구 중 전체가 봉괴하거나 거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진 집들이 보기 흉하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신두팔족 골체가비셔, 114개 가정 중 112개 완파, 사망 11명, 중상 3명. 쌀 114포대와 천막 50개 지원하였습니다.”

“전 어제(8일) 텔리푸르 타이버 지역에서 100여 명에게 점심 한 끼를 제공하고 쌀 25kg 28포대, 라면 25박스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똑같은 마을에 잘 다녀 왔습니다. 담요 50장, 텐트 50개에서 아직 텐트는 두 개밖에 없어서 못 갖다 주었고요. 여성용 키트 100개는 인기 ‘짱’이었습니다.”

전문 구호대원,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보고가 아니다. 지난달 25일 대지진 발생 당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네팔 주민들과 똑같이 지진을 경험하고 피해를 입은 현지 한인 선교사들의 이야기다. 갑작스럽게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 이들은 식량과 긴급구호물품을 트럭에 싣고 네팔의 험한 지형과 비포장 도로 위를 달렸다. 13시간 동안 트럭을 타고 도로와 낭떠러지 길을 통과해 고지대 마을을 찾는가 하면, 산사태, 낙석의 위험에도 산속 마을에 꼭 필요한 식량과 텐트를 전달했다. 물론 선교사들도 위험한 길을 떠나는 것이 두려웠다고 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다. 이들은 “지진 발생 후 2주 정도 지나자 구호대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접근 가능한 지역에는 어

느 정도 구호물품이 전달됐지만, 네팔 지형상 접근이 어려운 많은 지역에서는 아직 구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오지 마을 피해 주민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해도 구호활동에서 소외된 주민들은 구호 물품을 싣고 도착한 선교사들을 반기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한 선교사는 “정부나 외부의 도움이 없어서 텐트도 없이 산 속에서 생활하고, 열흘 넘게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구호가 시급했던 지역을 돋고 온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선교사들은 구호사역 외에도 지진으로 교회 건물이 파괴되고 성도들이 사망한 네팔교회들을 방문해 함께 예배하고 격려하는 사역도 했다.

이처럼 대지진 직후 피해 주민과 현지 교회 및 성도들을 위해 신속한 초기 구호활동을 펼친 네팔 주재 한국선교사협의회 재난대책본부가 10일 해산하고, 향후 각 교단 및 선교기관, NGO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구호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12일 또다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추후 대처방안이 달라질 수도 있으나, 큰 방향은 이같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네팔 주재 한국선교사협의회는 지난달 25일 대지진 발생 3일 만인 27일,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국위기관리재단(KCMS)과 함께 3자 협의를 통해 네팔 한인 선교사 12명으로 구성된 재난대책본부를 발족했다. 대책본부는 14일 동안 총 16만 1,759달러(약 1억 7,700여 만 원)를 모금하고 총 14개 도, 108개 마을의 피해 주민에게 식량, 구호 물품 등을 전달했다. 이들은 3천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신두팔 족을 비롯하여 카트만두, 누와곳, 달딩, 러수와 등 14개 도에 쌀 20,259포대, 라면 1,034박스, 천막 6,012개,

4인용 담요 2,284장, 현금 등을 긴급 지원했다. 추가로 천막 3천 개는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 중이다.

대책본부장으로 섭진 어준경 네팔 주재 한국선교사협의회 회장은 11일 페이스북(Pray for Nepal, 네팔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에서 “긴급구호 국면에서 중장기적 복구사역의 국면으로 전환하는 협력선교의 방향에 대하여”란 글을 통해 “NGO, UN, 외국 원조에 따른 네팔 정부의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급박하게 구성해 활동한 대책본부는 5월 10일 자로 일단 해산하게 됐다”며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밝혔다.

어 본부장은 “지진 발생 이후 선교사회는 긴급하게 재난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초기 구호활동을 펼쳤고, 모든 선교사님의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는 헌신적이고 신속한 구호 활동으로 많은 네팔 사람이 절박한 재난상황 속에서 시의 적절한 도움을 받았을 수 있었다”며 “이 일을 감

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선교사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선교사회가 복구사역을 장기적 전망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며 “다음 단계에서는 교단별, 선교기관별, 선교사별 사역이 활발해질 것이며, 선교사회는 개별적 사역이 최대한 서로 협력하여 불필요한 중복과 낭비를 줄이고 경쟁적·소모적 활동을 최소화하도록 조정·중재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선교사회 소속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이번 주 안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어 본부장은 “연합 사역의 한 모델로, 지역별 연합사역을 추진하여 교단이나 선교기관들이 협력하여 해당 지역 네팔교회연합과 공동으로 사역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라며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게 하심을 복구사역 속에서 이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어 본부장은 마지막으로 “어려움에 처한 네팔의 회복을 위해 섬기며 도와야 하는 상황은 저희 선교사회에 큰 도전일 뿐 아니라 성숙해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책임의식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연합, 협력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 나라만 구하는 종의 모습으로 섬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네팔 주재 한국선교사협의회는 지역별 연합사역의 한 모델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후원금은 특정 교단, 단체, 개인이 아닌 선교사회가 공동 추진하는 복구 및 재건 프로젝트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모든 재정은 투명하게 공개할 계

획이다.

이번 구호 사역에 동참한 한 네팔 선교사는 “네팔 한인 선교들의 헌신과 동역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자랑스럽다”며 “한국교회 역시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동역한다면 더 큰 일들을 하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탄의 늪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NGO 사역자는 “이번에 선교사회에서 너무나 일사불란하게 다른 단체들보다 빨리 초동대처를 해주어서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네팔 주재 한국선교사협의회 재난대책본부의 한국 내 창구 역할을 맡은 한국위기관리재단(KCMS)도 현장과의 협력을 지속하면서 구체적인 사역 계획을 세워나갈 방침이다. 현재 두 단체는 대지진 참사에 노출된 피해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예방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조치 등에 협력하고 있다.

KCMS 사무총장 김진대 목사는 “재난 발생 직후 당장 도움이 필요한 피해 주민들을 위해 현지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선교사회가 신속하게 전략을 세우고, 한국에서는 선교사들의 요청에 따라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의 구호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KCMS는 지난 2주 동안 네팔로 들어가는 구호팀, 봉사팀과 현장의 필요 등을 조율하고, 성금과 위기관리지침서 전달, 한국교회에 현장 정보 전달 등의 역할을 했다. 김진대 목사는 “이번 네팔 구호사역은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 재난 취약 국가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도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위기 관리시스템을 미리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희 기자



네팔 한인 선교사들은 네팔 피해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식량과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네팔 주재 한국선교사협의회 재난대책본부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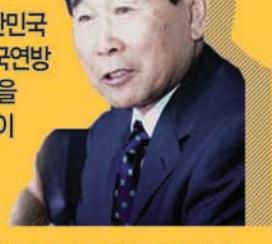
Special Price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100% 천연성분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40여 년간 당뇨 연구를 해온 대한민국 대표과학자로 한국인 최초로 미국연방 정부 지원을 받아 당뇨 신약개발을 위해 FDA 2차 임상상을 진행하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 재향군인병원 수석연구원 세계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혀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6개월 이상 복용하시면 혀장 베타 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하는데 PRO-Z GOLD가 해결해드립니다. 혼자기지는 수만 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유지에 그쳤으나 PRO-Z GOLD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 내 몸에서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게 하는 당뇨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솔루션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입니다.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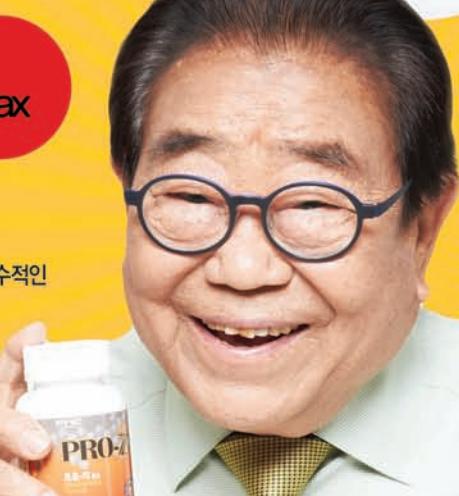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100% 천연성분

FDA IND 임상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amgreensolutions.com

앰그린의 '닥터 솔라'가
전기값 95%, 물값 30%를
한번에 줄여 드립니다!



솔라시스템 설치전 설치후

Los Angeles  Department of Water & Power
www.ladwp.com

Electric Amount Due **\$537.72**

Los Angeles Department of Water and Power Charges			
LA DWP	Electric Charges	3/4/14 - 5/5/14	3054 KWH \$537.72
800-342-5397	Water Charges	3/4/14 - 5/5/14	66 HCF \$322.98
Total LADWP Charges			\$ 860.70

Water Amount Due **\$322.98**

Electric Amount Due **\$23.38**

Power Charges		
15	152 KWH	\$23.38
15	45 HCF	\$215.69
Total LADWP Charges		\$ 239.07

Water Amount Due **\$215.69**



California Lic# 947489

초기 설치비용 무료!
(개인 Credit Score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태양광 솔라시스템- 암그린

업체 유일, 30% 물절약 시스템 함께 무료 제공

솔라시스템을 설치하는 모든 고객에게 절수형 토일렛, 스프링쿨러 노즐 무료교체.

최고의 파이낸싱 프로그램 제공

고객에게 가장 필요한 경적, 가장 유리한 파이낸싱 조건을 찾아 드립니다.

Made in USA 제품만 사용하는 유일한 업체

솔라패널과 인버터 모두 25년의 워런티 제공.

LA CITY 선정 2년 연속, 에너지 절약 최우수업체

인정받은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로 안정적인 시공과 커스터머 서비스를 제공.

주 7일 무료상담: **1.844.900.1004**

1367 Venice Blvd, LA, CA 90006 / sunny@amgreensolutions.com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AmGREEN

솔라 세일즈 컨설턴트 모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복한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시 128:1-3)

오늘의 본문은 가정의 행복이 여호와의 경외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고 강조한다. ‘복이 있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쉬레이’는 ‘행복하다’는 의미다. 본래 이 단어는 ‘똑바르다’를 뜻하는 ‘야사르’에서 파생되었는데, 이는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들이 누리는 행복의 근거임을 보여준다.

‘경외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레’는 ‘두려워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피하거나 도망친다는 부정적 의미의 두려움이 아니다. 존경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긍정적 의미의 두려움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다’와 평행을 이루는 것이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곧 여호와께서 정해 놓으신 길을 따라 가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따라 걷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행복한 가정이다. 그것은 가정을 이루는 세 기본 구성원인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의 건강한 모습 속에 잘 드러나 있다.

가장인 남편에게 주어지는 복은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 이라”이다. 농경사회였던 당시 상황에서 ‘손으로 수고한 것’은 곡식인 밀과 보리의 수확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이런 곡식으로 주식인 빵을 만들어 먹는다. 성경은 이를 두고 “사람의 마음을 힘 있게 하는 양식”이라고 하였다(시 104:15).

이스라엘은 늘 물이 부족한 나라이다. 사람이 제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여도 제 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신 28:12)라고 하였다. 우



권혁승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구약학

리의 수고가 앞서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아내에게 주어진 복은 ‘결실한 포도나무’이다. 이스라엘에서 포도는 여름 과일을 대표하는 작물이다. 겨울 우기에는 밀과 보리를 경작하지만, 건기인 여름에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 등의 과일을 수확한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12명의 대표자들이 가나안 땅의 비옥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가져왔던 것이 세 종류의 여름 과일이었다(민 13:20, 23).

이스라엘에서 포도를 재배하는 것은 포도주 생산을 위해서이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음식을 먹을 때 함께 마시는 중요한 음료다. 예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천에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셨다. 성경은 포도주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시 104:15)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한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남편의 둋인 곡식으로 만든 빵과 대비되는 음료로서의 포도주 역할을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포도주가 지닌 의미처럼 가정 안에서 즐거움을 제공하는 원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자녀에게 주어진 복은 ‘어린 감람나무’이다. 이스라엘에서 감람나무는 감람열매를 맺어 감람유를 생산하게 된다.

감람유의 용도는 매우 다양하다. 식용유를 비롯하여, 등잔불을 밝히는 기름, 손님을 맞이할 때 머리에 바르는 기름, 상처에 바르는 구급약 품으로도 사용된다. 종교적으로는 왕이나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울 때도 감람유가 사용된다.

이스라엘에서 감람나무는 죽지 않는 나무로 알려져 있다. 감람나무는 아무리 수령이 오래되어도 항상 새로운 가지가 나와서 신구의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수천 년이 된

고목의 감람나무인데도 새싹의 어린 가지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자녀를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하였다. 부모들이 지켜온 신앙을 대대로 이어가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들도 곧 자라고 결실하여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시 104:15).

행복한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정해 주신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가정이다. 그런 가정은 구성원인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된다.

행복한 가정의 세 구성원들은 ‘식량’과 ‘과일’과 ‘기름’을 생산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들의 역할은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3대 농작물이기도 하다(시 104:15, 율 2:19). 이 세 농작물은 7가지로 확대되는데,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과 꿀이 그것이다(신 7:8). 행복한 가정이란 각자의 은사를 따라 자신의 역할을 통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나눔으로 전체가 흡족함을 공유하는, 하나님 경외의 신앙 공동체이다.

· 행복칼럼

당연히 모르지!



김병태 목사
성천교회 담임

어버이날을 보내며, 부모님을 생각할 때 좋은 추억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나쁜 추억만 떠오르는 사람도 많아 있을 것이다. 어느 친정 엄마가 딸에게 쓴 짤막한 편지가 있다.

“너희들이 주는 돈으로 그럭저럭 살면 되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싶어 공연히 서글프고 눈물도 났다. 다리가 어찌나 아픈지. 내 몸이나 잘 간수하면 다행일 나아이에 ‘내가 왜 이러고 사나’ 후회도 했지. 수시로 마음이 오락가락했다. 한 달에 20만 원. 가만 있으면 그 돈을 누가 주나? 밭뙈기 파니 그래도 달이 20만 원씩 들어 오잖나. 그런데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금방 또 마음이 바뀌지 뭐나. 그만 뒤이자. 이달까지만 하고 그만하겠다고 해야지.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갈등이 왔다.

그러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벌써 넉 달을 넘겼으니 모두 합해 80만원 벌었다. 이젠 마음 굳혔다. 지금은 방학이라 쉬고 있지만 방학 끝나면 또 하려고 한다. 내년에도 신청할 거야.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학교가 크거든. 비라도 오는 날은 흔이 쑥 빠질 것 같아. 그런 날은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까

지 몰려 나와 함께 교통정리를 하지. 처음에는 미스도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나 잘한다. 선생님들도 ‘할머니, 할머니’ 하며 내게 얼마나 깍듯이 하는지 모른다. 그래도 그 돈 번다고 친구들에게 국밥도 한 그릇씩 사 주고, 일 끝나고 오는 길에 웃집에 들러 웃도 하나씩 사 들고 온다. 그런 일을 하니 깨끗해지지. 아무 웃이나 입고 다니면 남 보기도 흉하잖나?

신발도 편하고 좋은 걸로 하나 샀다. 20만 원이라 해서 내 한 달 월급 인데 싶어 잠시 망설였지만, 그 신발 신고 더 편하고 기쁘게 일할 수 있으니 그것도 잘 한 것 같다. 내 걱정은 마라. 내가 번 돈으로 손자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며느리 용돈도 몇 푼씩 집어 주고.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만, 하는 날

까지 해 볼란다.”

어느 친정 엄마가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며 돈을 버는 이유이다. 일흔 여섯인 엄마가 아이들 등교 시간에 맞춰 한 시간씩 교통정리를 하는 게 가슴 징하기 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 그것도 낙이리라 싶어 안도를 한다.

부모를 생각하면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반응이 나온다. 어떤 이는 부모님께 해드린 게 너무 없어 부끄러움의 눈물을 흘린다. 어떤 이는 효도도 제대로 못한 채 다른 세상으로 먼저 보낸 부모를 생각하며 회한의 눈물을 흘린다. 어떤 이는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자꾸 회상되어 속상함과 분노의 눈물을 흘린다.

때때로 남들 부모보다 멋지지 않은 내 부모님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다. 다른 부모들이 해주는 것처럼 해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이 앞설 때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어선 안 되는 게 있다.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쓴다는 사실을.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는 없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는 없다. 부모는 자녀에게 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 설령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한다.

성경은 자녀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제시한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도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먹고 살다 보니 부모님을 돌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자식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느라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지만, 미처 부모님을 봉양할 엄두도 못 낼 때가 있다. 그런데 기억할 사실이 있다. 그 부모는 언제 까지나 우리를 기다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어떤 이는 성장 과정에서 부모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서 부모님의 얼굴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래도 기억할 사실이 있다. 그런 부모도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낸 받은 존재임을. 부모 역시 당신처럼 온전하지 못한 존재임을. 부모에게 불평하고 있는 당신을 쳐다보고 있는 당신의 자녀가 있음을.

우리가 원망하고 있는 부모는 그 시대의 산물이다.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시대, 그래서 훨씬 더 고생하며 살았던 인생. 자식된 우리는 부모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

장수한의원

척추
교정

골반
교정

자세
교정

근육
교정

축
장
이
전!

추나
수술 없이
척추 치료



Dr. Kim Byung-tae

Dr. Kim Byung-t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I am a church member

톰 레이너 | 아가페북스 | 13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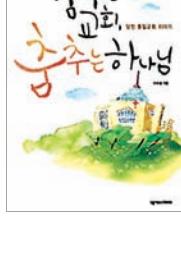
당신에게 교회의 '고객'인지 '성도'인지 묻는 짧은 책이다. 미국 복음주의자들의 각광을 받았으며, 새 신자나 성도들의 양육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제 역할을 수행하는 성도, 연합하는 성도, 자기 취향과 욕구에 교회를 맞추려 하지 않는 성도, 교회 리더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 가족이 건강한 성도가 되도록 이끄는 성도, 교회 멤버십을 소중한 선물로 여기는 성도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꿈꾸는 교회, 춤추는 하나님

이수훈 | 넥서스CROSS | 300쪽

비좁은 눈길을 따라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산골 교회 이야기. 교회도 없는 당진의 농가에서 한 가정과 예배드리기 시작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처럼 예배당을 건축하고, 지역 사회와 가정을 회복시키며,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을 품은 이야기가 펼쳐진다. 동일교회의 비전은 지친 사람을 회복시키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다. 4부에서는 교회만의 교육 프로그램도 소개한다.



하나님, 우리 특 해요!

김성수 | 그림 황성욱 | 예키즈 | 160쪽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방법을, 재미있는 예화와 만화를 통해 10대의 눈높이로 풀어냈다. 친숙한 위인들의 예화를 비롯해, 감동적인 이야기들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울 수 있다. 각 장 마지막 '내 삶에 적용해요'에서는 읽은 내용들을 삶에 적용하도록 했다. 주일학교와 중등부에서 7주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도록 엮었다.



답 없는 너에게

손봉호 · 옥명호 | 흥성사 | 208쪽

10대의 여러가지 고민들에 70대 노(老) 철학자가 답했다. '인간관계, 뭐가 이렇게 복잡하죠?', '억지로 하는 거 딱 질색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요?',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등 네 부분으로 된 15가지의 다양한 질문에, 인자한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풀어낸 내용을 엮어냈다. 저자는 10대들에게 "지혜는 우리같이 늙은 세대에게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REVIEW

“어느 老 의사의 외침, 생명의 설계도를 따르라”

성경적 관점에서 다른 전인치유의 원리와 적용방식

성경은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이다. 6500개 언어 중 2800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선택적 가치인 하나님의 사랑 외에도 이웃사랑과 자기 사랑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기에 신앙의 유무를 불문하고 읽어볼 가치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어느 노 의사의 외침, 생명의 설계도를 따르라'는 이런 성경의 관점에 기독 의사로서 신앙과 유전자의 관계와 전인치유의 관점을 연결한 책이다. 이 책에는 이웃과 민족을 사랑한 한老 의사의 신앙과 사랑이 녹아있다.

저자인 김영준은 1997년에 말기 암 환자였던 그의 아내가 오직 신앙과 사랑만으로 치유되는 사건을

체험한 뒤로 많은 암환자들에게 전인적인 치유의 힘을 알리는데 헌신해왔다. 그는 자신의 체험이 바탕이 된 책 '사랑 받는 세포는 암을 이긴다'(1995년) 아래 여러 권의 전인치유 관련 서적을 저술해 왔는데, 이 책 '생명의 설계도에 따르라'도 성경의 신앙에 기초하여 현대 유전인자의 발전된 새로운 지식과 몇 해 전 본인의 후두암을 치유한 배경을 바탕으로 저술한 전인치유의 원리와 적용방식을 기술한 책이다.

이 책에는 제목 그대로 하나님만드신 '생명의 설계도를 따르라'는 저자의 외침이 들어 있다. 저자는 크리스천 의사의 관점에서 현대



생명의 설계도를 따르라

김영준 | 노란숲 | 163쪽

과학의 발전으로 발견된 유전자를

생명의 복으로 해석하면서 예수님이 복을 선포와 양육 및 치유의 사

역이 살아있어야 할 교회 내에서 유독 치유사역이 경시 당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한국교회가 교회 내에서 치유사역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창세기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복과 함께 우리 죄를 보혈로 구속하신 예수님이 사랑의 은혜가 바탕으로 깔려 있는 이 책은 우리의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발현하는데 신앙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 우리가 창조주 안에서 마음을 비우고 유전자에 입력된 생명의 설계도에 따라 살아갈수록 건강과 질병으로부터 회복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동시에 성경에서 말하는 자연 친화, 식습관, 노동과 수면 등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붙이고 살아야 함을 아울러 강조한다. 또한 의학자로서 암 치료에 있어서 현대의학이 갖는 진단능력의 장점과 한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믿음에 근거한 영혼과 육체, 인간관계와 환경을 함께 치유하는 전인치유의 관점을 제시한다.

이 책의 부록 또한 매우 값지다.

저자가 오랫동안 헌신해온 전인치

유운동을 성공적으로 구현하는 '사

랑의 마을'의 안도현 목사와 '복내

전인치유선교센터'의 이박행 목사

가 성경적인 전인치유 사역과 구체

적인 치유방식 및 사례 등을 소상히

기술하고 있다.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한한 옷!!

너무 쇠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킁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걸작품입니다.



NB 코르셋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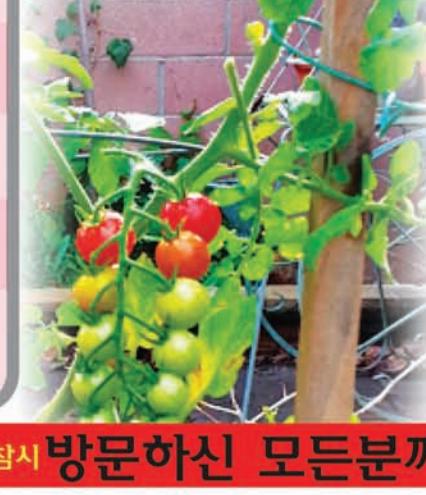
-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 입자마자 혈액 순환이 달라짐(통증 완화)
- 특수 공법으로 수축되지 않고 인체에 완벽한 섬유와 세계 특허 이중지퍼 사용. 한국 식약처에 의료기기로 등록된 교정 코르셋

NB CORSET Tel: 323.316.6815

‘가격의 섬유’로 만든 ‘음이온 건강이불’ 빌이 불편한 분은 「NB 메디칼 슈즈」, 가장 강한 「SJP 슈퍼 유산균 건강제품 전문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베티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킁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티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나지 않는 특수 천으로 킁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베티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각종 질환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내면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성령과 분리 안 돼

웨이커교의 창시자 조지 폭스의 일기

직조공의 아들로 태어난 조지 폭스(Gorge Fox, 1624-1691)는 학교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다. 그는 인생에 회의를 느끼고 열아홉 살에 집을 나와, 4년 간의 구도여행을 통해 펜들 힐(Pendle Hill)이라는 산에서 환상을 보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한다.

그는 1647년경부터 설교를 시작하여 '내면으로부터의 빛'에 의한 구원을 전하며, '진리의 빛'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웨이커교(친우회, 또는 종교친우회)는 영국 정부에 의해 탄압받았으나, 웨이커 신도 윌리엄 펜이 북아메리카 식민지 영토에 도시(현 미국 펜실베이니아)를 세움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허용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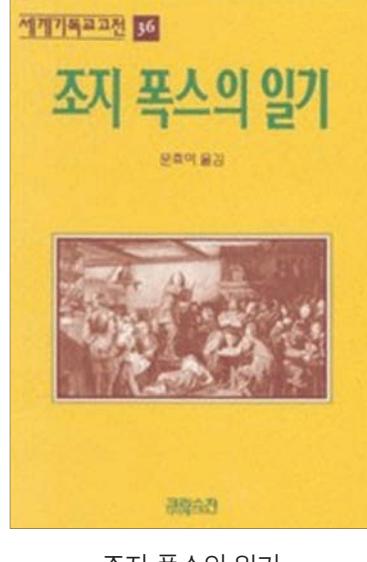
웨이커교의 창시자인 조지 폭스의 「일기」(The Journal of George Fox)는 웨슬리의 「일기」(Journal)나 뉴먼의 「나의 생애를 위한 변명」(Apologia pro Vita Sua)과 같은 부류의 책으로 간주되어 왔다. 폭스의 글은 이런 종류의 글 중 원조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책은 신앙의 고전에 포함할 만한 무게를 지니기도 했다.

최초로 발행된 폭스의 「일기」에는 그에 관한 증언과 회상이 있는데, 편집자인 토마스 엘우드(Thomas Ellwood)와 폭스의 미망인,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인 윌리엄 펜(William Penn)의 증언도 함께 실려 있다.

윌리엄 펜은 폭스를 1669년부터 알았는데, 펜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알았을 뿐 아니라, 직접 그와 오랫동안 내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와 친해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초판 발행 이후인 1694년에는 다른 편집본들이 많이 나왔다. 「일기」는 다른 웨이커교도의 책들처럼 처음부터 완전히 유럽 대륙의 언어로 번역되어 나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2세기 동안 영국과 아메리카에 있던 웨이커 공동체는 작품 전체를 대륙으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였다.

폭스의 「일기」는 그 내용이 방대했다. 「일기」는 폭스의 수 년에 걸친 사역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조지 폭스의 일기
조지 폭스 | 크리스찬다이제스트
472쪽

책이 처음 출간되었을 때 가장 먼저 큰 저항의 목소리를 낸 사람은 웨이커교에서 변질한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친우회에 대해 비평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폭스는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책에 대한 비난도 있었다. 「일기」나 다른 책들 어디서도, 폭스가 죄의 고백이나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다고 비난하였다.

폭스는 유혹과 억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유혹에 굴복했다고 인정하거나 자신에게 회심이 필요하다거나 회심한 사실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폭스 자신은 일기에서 그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주 어렸을 적에 나는 아이답지 않게 진중하고 끈기가 있었다." "열한 살이 되었을 때 나는 순결함과

의를 알았다. 그동안 순결함을 지키며 행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내게 성경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은 텔끝만치도 없다. 성경은 내게 아주 소중한 것이긴 했다. 왜냐하면 나는 성령 안에 있었으며 성령께서 성경을 내게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열어 보이셨고 내가 나중에 발견한 것은 모두 성경과 일치하는 것들이었다."

폭스는 영국 국교회나 청교도와 갈등을 빚었다. 그는 직접적인 계시를 강조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신앙의 틀에서 상당히 벗어나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좋아했다.

폭스는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인용한 말을 사용하였으나, 자신의 혁명적 사고와 함께 전통적인 용어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는 직접적인 인도를 역사적 계시와 동일시하고 있다. 그리고 내면의 빛은 그리스도나 성령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내면의 빛은 성경을 밝히신 영과 같은 영을 말한다고 하였다.

이런 폭스의 말에 학자들은 그가 성경 기록보다 내면의 경험을 우선시하고, 과거의 거룩한 행위보다는 현재의 신앙을 중요시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지만 폭스의 「일기」에 근거를 둔 것들임이 틀림없다.

데니얼 디포의 시대에서 1세기 후, 웨이커교는 영국 문학에 깊이 침투하기 시작했다. 이런 관심은 웨이커교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어서 라기보다는 웨이커교를 바라보는 연민 때문이었다. 또 그런 관심을 보인 작가들 대부분이 친우회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었던 까닭도 있었다.

실제로 폭스의 「일기」에 나오는 '이상한' 특징은,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점이었다. 죄를 인식함이 없다는 것은 18세기에 인정되는 전통적 교리에 다소 어긋나는 것이었다. 프랜시스 버그(Francis Burg)는 거듭해서 폭스의 「일기」에 대해 죄의 고백이나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다고 비난하였다.

폭스는 유혹과 억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유혹에 굴복했다고 인정하거나 자신에게 회심이 필요하다거나 회심한 사실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폭스 자신은 일기에서 그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주 어렸을 적에 나는 아이답지 않게 진중하고 끈기가 있었다." "열한 살이 되었을 때 나는 순결함과의를 알았다. 그동안 순결함을 지키며 행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내게 성경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은 텔끝만치도 없다. 성경은 내게 아주 소중한 것이긴 했다. 왜냐하면 나는 성령 안에 있었으며 성령께서 성경을 내게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열어 보이셨고 내가 나중에 발견한 것은 모두 성경과 일치하는 것들이었다."

폭스는 영국 국교회나 청교도와 갈등을 빚었다. 그는 직접적인 계시를 강조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신앙의 틀에서 상당히 벗어나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좋아했다.

폭스는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인용한 말을 사용하였으나, 자신의 혁명적 사고와 함께 전통적인 용어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는 직접적인 인도를 역사적 계시와 동일시하고 있다. 그리고 내면의 빛은 그리스도나 성령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내면의 빛은 성경을 밝히신 영과 같은 영을 말한다고 하였다.

이런 폭스의 말에 학자들은 그가 성경 기록보다 내면의 경험을 우선시하고, 과거의 거룩한 행위보다는 현재의 신앙을 중요시한다고 말하고 있다.

송광택 목사

한국교회독서문화연구회 대표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56 입양가족들의 '한 가족' 만들어 가는 이야기

는 가정이라 해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출간된 책 〈가족 꽃이 피었습니다〉에는 56가지 입양 가족들의 다양한 실제 이야기들을 담아내, 그러한 고민들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뿐 아니라 아직도 남아 있는 입양에 대한 편견을 씻어주고 있다. 책은 '입양 가족 사진 공모전'에 출품된 사진과 사진들을 엮은 에세이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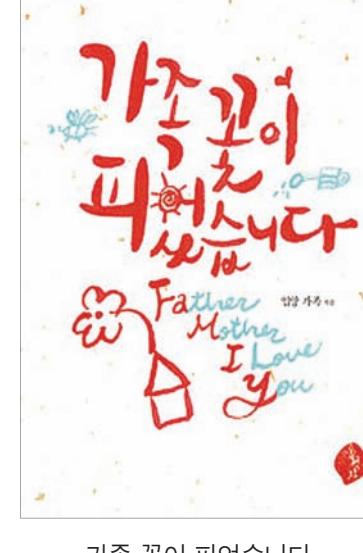
프랑스로 입양돼 자라난 한 남성은 모국에 대한 호기심으로 한국을 찾았다. 입양을 해 아빠가 됐다. '내 엄마'를 찾겠다는 아이의 속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진짜 엄마'가 된 경우도 있다. 각 가족들의 사연을 들여다 보면, 입양이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의 선행이나 희생이 아니라 가족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일 뿐임을 자연스레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쉽지 않은 결심을 실행에 옮겼던 이들은 이야기한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때론 너무 고단하기도 하지만, 아이가 가정에 가져온 행복은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가슴으로 넣은 아이'라고 이야기하면, 복 받을 거라는 인사를 받곤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아빠이고 엄마입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한국전쟁 직후 고아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입양사업으로 출발했다.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는 소명 아래 아동 행복 중심의 '입양복지 사업'을 펼쳐가고 있다. 특히 입양에 대한 사회의 '불편한 시선'이 건강한 관심으로 바뀔 수 있도록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데, 책이 된 '입양 가족 사진 공모전'도 그 중 하나다.

홀트아동복지회 김대열 회장은 추천사를 통해 "사랑하면 닦는다"는 말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이 가족들이 아닐까"라며 "이 책에 담긴, 꽃들 만큼이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적시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대웅 기자



가족 꽃이 피었습니다

입양가족들 | 홍성사 | 208쪽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에

서는 '입양의 날'을 맞아, 홍성사를

통해 〈가족 꽃이 피었습니다〉를 발

간했다.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은 입

양의 날은, 가정의 달 5월에 한 가

정이 한 아동을 입양해(1+1) 새로

운 가정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를 담아 매년 5월 11일에 기념하고 있으

며, 기존의 혈연 중심 가족 문화와

비밀입양 선호 등을 극복하고 아이

들이 국내 입양을 통해 건강하게 성

장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안겨줬던 해외 입양은 사회 인식 변화와 새로운 정책의 시행, 경제 발전 등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가정의 품에서 자라나지 못한 채 고아원에 가게 되거나 입양되는 아동들의 숫자는 상당하다고 한다.

유명인들을 비롯해 국내외 목회자 가정들을 통해 여러 아름다운 입양 사례들이 알려져 있지만, '입양'에 대한 사회 분위기는 여전히 따뜻하지만은 않다.

아이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힘들어하자는 않을까, 주위 시선들 때문에 괴로워하자는 않을까, 낳은 아이와 입양한 아이에 대한 사랑의 크기가 다르지는 않을까 등 여러 고민들을 떠올리다 보면, 입양을 원하



책 속의 한 장면 ©홍성사 제공



유전자 생약치료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621 S. 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 T. 213.487.0691

다나병원은 Well-Being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내면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CHRISTIAN BUSINESS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이연이 균형세포의 당대사와 청정 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심이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연에 CHP를 첨가한 신형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제(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환양배너 스텐드포함 \$65 (문의주시면 세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 5,997,908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한국인 최초로 미 체부 지원으로

당뇨신약개발, 현 FDA 임상 2상 실험진행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 재향군인병원 수석연구원

-세계3대 인명사진

Marquis Who's Who 등재

FDA 인증

Special Price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3병 \$249 6병 \$474

+ tax + tax + tax

+ tax + tax + tax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BFJ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전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한국 배너 스텐드포함 \$65 (문의주시면 세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원 앞장서는 탐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과와 소평원인 주님미디어 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심기시는 사역과 사업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junim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DVD 제작전용,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사업(설비내외·사업) 제작, 한총 물인쇄 전문

junimmedia.com

제작과제 및 제작비, 선정단계를 위한 협약안으로도 진행하고 있으니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축제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세가지 선물용시디앨범을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1. 전도용품 세일

◆ 전도용티슈 ◆

◆ 불편 ◆

전도용티슈 1,000set(\$380)

고급형 글 품질 \$1 set에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 전도엽서 ◆

국제 영사용 편지 및 전도용 편지

전도용 편지 구비되어 있어 더욱

다양한 성용과 할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도용티슈 1,000set(\$380)

고급형 글 품질 \$1 set에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 전도엽서 ◆

국제 영사용 편지 및 전도용 편지

전도용 편지 구비되어 있어 더욱

다양한 성용과 할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도용티슈 1,000set(\$380)

고급형 글 품질 \$1 set에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 전도엽서 ◆

국제 영사용 편지 및 전도용 편지

전도용 편지 구비되어 있어 더욱

다양한 성용과 할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도용티슈 1,000set(\$380)

고급형 글 품질 \$1 set에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 전도엽서 ◆

국제 영사용 편지 및 전도용 편지

전도용 편지 구비되어 있어 더욱

다양한 성용과 할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도용티슈 1,000set(\$380)

고급형 글 품질 \$1 set에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 전도엽서 ◆

국제 영사용 편지 및 전도용 편지

전도용 편지 구비되어 있어 더욱

다양한 성용과 할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도용티슈 1,000set(\$380)

고급형 글 품질 \$1 set에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 전도엽서 ◆

국제 영사용 편지 및 전도용 편지

전도용 편지 구비되어 있어 더욱

다양한 성용과 할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도용티슈 1,000set(\$380)

고급형 글 품질 \$1 set에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 전도엽서 ◆

국제 영사용 편지 및 전도용 편지

전도용 편지 구비되어 있어 더욱

다양한 성용과 할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도용티슈 1,000set(\$380)

고급형 글 품질 \$1 set에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 전도엽서 ◆

국제 영사용 편지 및 전도용 편지

전도용 편지 구비되어 있어 더욱

다양한 성용과 할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도용티슈 1,000set(\$380)

고급형 글 품질 \$1 set에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 전도엽서 ◆

국제 영사용 편지 및 전도용 편지

전도용 편지 구비되어 있어 더욱

다양한 성용과 할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도용티슈 1,000set(\$380)

고급형 글 품질 \$1 set에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 전도엽서 ◆

국제 영사용 편지 및 전도용 편지

전도용 편지 구비되어 있어 더욱

다양한 성용과 할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도용티슈 1,000set(\$380)

고급형 글 품질 \$1 set에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 전도엽서 ◆

국제 영사용 편지 및 전도용 편지

전도용 편지 구비되어 있어 더욱

다양한 성용과 할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도용티슈 1,000set(\$380)

고급형 글 품질 \$1 set에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 전도엽서 ◆

국제 영사용 편지 및 전도용 편지

전도용 편지 구비되어 있어 더욱

다양한 성용과 할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도용티슈 1,000set(\$380)

고급형 글 품질 \$1 set에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 전도엽서 ◆

국제 영사용 편지 및 전도용 편지

전도용 편지 구비되어 있어 더욱

다양한 성용과 할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도용티슈 1,000set(\$380)

고급형 글 품질 \$1 set에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 전도엽서 ◆

국제 영사용 편지 및 전도용 편지

전도용 편지 구비되어 있어 더욱

다양한 성용과 할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Korean American Pastors Dialogue on Engaging the Community

Recent Issues Highlight Need for More Civic Engagement from Korean American Christians

BY RACHAEL LEE

Countless social issues are affecting the world today, and one issue that has been especially capturing the attention of the U.S. is the racial tension that has resurfaced due to the deaths of Michael Brown, Eric Garner, and Freddie Gray over the past several months. Since the first incident in August, Christian leaders in various contexts have been discussing the issue of racial reconciliation, but many Korean Americans have begged the question: Where are the Korean American Christian leaders in these discussions? For many, the lack of a voice from the Korean American church on such issues seemed to reflect a lack of engagement of the Korean American church with other cultures in general.

This issue was discussed at the recent Connect Conference, a gathering of some 40 mostly Korean American pastors and lay leaders that took place at Thanksgiving Church in Buena Park, CA.

The conference, which aims to empower and connect Korean American pastors for the further building up of God's kingdom, particularly focused on social justice this year and the need for Korean American Christian leaders to engage in social issues.

"Ever since the incident in Ferguson happened, this is something that's been on my heart," said Grace Cho from Las Vegas Full Gospel Church, who served as the head organizer of the conference.

"We need to care about these issues, and ask Jesus to help us to see as he sees, and feel as he feels about these things," she said.

Steve Choi of Crossway Church; Susie Gamez from World Impact; and Aaron Cho from Quest Church, spoke on the first day of the two-day



(From left to right: Steve Choi, Susie Gamez, and Aaron Cho) The Connect Conference discussed how Korean American Christian leaders are to engage with social issues in the current day.

conference, during which the dialogue was mostly focused on community engagement.

Steve Choi began the conference by setting the foundation for acts of justice: the grace that God freely gives. He cautioned leaders against using good works—including those of social justice—as a way to somehow repay God for his grace, and instead reminded them that God's grace is a gift freely given and one that can never be repaid. This truth frees the Christian to become grateful, gracious, and generous people to others, Choi said.

With grace as the foundation, Susie Gamez and Aaron Cho focused their attention on the need for Korean American Christians to engage in dialogue about social issues and racial reconciliation.

"Korea is known to be one of the countries that sends the most missionaries overseas," said Gamez, a Korean American woman who married a Latino American man. Both Gamez and her husband serve in World Impact.

"But have Korean Americans taken the mission call seriously in our own backyards? Will the commu-

nity around us recognize us for the love we have for our neighbors?"

Discussing Koreans' tendency to be exclusive, Gamez explained that this may arise from Korea's history of having to defend itself from numerous countries.

"Defending our culture is a major part of our history," she said.

However, she added, Korean Americans who have grown up in the U.S. "have a different call" to their lives, and "live in a different time and place from that of" previous generations.

"We [Korean Americans] have to be intentional in undoing the exclusive tendencies," Gamez said.

Aaron Cho agreed, and added that the upbringing of Korean Americans may also affect their engagement, or lack thereof, with the greater community.

"I didn't talk about race and justice at the dinner table with my parents," Cho said. "And having not grown up with these discussions, we probably wouldn't know how to engage in them as adults."

"So I think a lot of times, we stop ourselves from publicly discussing these issues because we're

afraid we'll say something wrong. But saying nothing is also saying something," added Cho.

"Does your ministry and/or church talk about injustices happening in the world, and is there room to pray for these issues? These issues of Ferguson and Baltimore are the points of main conversation in the country today. These incidents will be in the future history books."

Cho encouraged leaders to take steps toward greater engagement by discussing and praying about these issues in the ministry setting, building relationships with people of different backgrounds, and even studying Christian books by people of different backgrounds.

Connect Conference was started in 2007 by the Assemblies of God Korean District Council with the heart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 pastors.

Eventually, the conference began to focus on empowering Korean American pastors to impact their communities, and give them opportunities to connect and build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to work together for God's kingdom.

Korean Churches Intercede for the Nation

BY RACHAEL LEE

In observance of the National Day of Prayer, some 800 people from various Korean churches in the Orange County area gathered at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GMI) on the night of May 7, interceding on behalf of the U.S. and the leaders of the nation.

"When we pray, miracles happen," said Reverend Jungmyung Song, the CEO of Gospel Broadcasting Company (GBC). GBC is one of the largest Korean Christian radio stations in Southern California.

Several dozen Korean immigrant and Korean American leaders led prayer topics on repentance; intercession for families and school campuses; intercession for President Obama, Congress, the Supreme Court Justices, and the other leaders of the nation; intercession for the leaders of churches and ministries; intercession on behalf of Korea; and intercession on behalf of missionaries all over the world, especially for those who are facing persecution in their mission fields.

"May You give courage to carry out justice; courage against evil; and courage to do what is right," attendees prayed on behalf of the nation's leaders.

The National Day of Prayer is a designated national observance that has been observed since 1952 by a joint resolution in Congress that was signed by former President Harry Truman. Over 40,000 gatherings are estimated to have taken place on Thursday to observe the day in corporate prayer.

The gathering of Korean churches at GMI was hosted by the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All Nations (JAMA) and the Korean Christian Council in America.

Interviews with Asian American Church Pastors, V:

The Need for Mutual Understanding in the Korean Immigrant Church



Pastor Jim-Bob Park is the senior pastor of Oriental Mission Church.

BY RACHAEL LEE

Korean Americans in the immigrant family and immigrant church contexts are likely familiar with the cultural, lingual, and generational struggles in interactions between the older and younger generations. Pastor Jim-Bob Park, the senior pastor at Oriental Mission Church (OMC) in Los Angeles, likewise, has experienced such struggles firsthand. Park experienced the second generation's pains and hurts as he served in English ministry (EM) for 20 years in multiple churches.

"Much of the second generation struggle with disillusionment of the spirituality of their parents. They saw Sunday Christians in their parents, and they don't want that. They were exposed to church fights, splits, and politics. The wickedness of one generation is killing the next," he elaborated.

Despite the things they've seen in the first generation, however, Park says that those in the second generation who are devoted to the Lord have a genuine and authentic faith—but again, the first generation doesn't make that devotion easy for them. Many first generation parents are unwilling to let go of their children, and tend to worship "a golden calf idol of success," he said.

As the first generation invested so much in their children, they often have high expectations for

success and fail to tell their children what to do after the success, which is living for God's glory and his kingdom, Park explained.

"The first generation suffered so much for their children, and they subconsciously or consciously want a payback or a return from the second generation. But I tell the first generation to not overinvest in their children, because children bring the worst return. Children are supposed to leave you and become one flesh with someone. Don't be disappointed if they don't come back to take care of you," he said.

Park also explained that sometimes, the KM (Korean ministry) is so protective of the EM, that the latter are handed everything on a silver platter, and are not given the opportunities to take responsibility.

"We need to let EM make mistakes," he said. "That's how they grow, and that's how they become more responsible and have more ownership."

Park has been trying to apply that in his own church. Since the EM pastor of OMC left, Park has been preaching for EM services until they find their new full-time EM pastor. However, he won't have any part in the search process—the current part-time EM pastor and EM leaders have been given the responsibility to find their new pastor. The EM also manages their own offerings.

Lack of ownership combined

with too many choices may be the cause for EM pastors choosing to leave a church when it becomes difficult, or for EM members choosing to "church hop." But Park encourages the second generation to cultivate endurance and patience, and "to seek a life of holiness rather than a life of comfort."

Leaving a life of comfort is what God led him to do when he was first called to leave EM and serve in KM 8 years ago. Park came to the U.S. when he was only 10 years old, so he felt that his Korean wasn't good enough to be able to preach in Korean, and the first generation was an entirely unfamiliar culture to him.

"But I felt the Spirit saying to me, 'You didn't go to KM to be comfortable. You went to KM for reform.'"

Since then, Park said he committed to speaking a message of repentance to the first generation Korean Christians. One of the main things he tries to help them understand is that the KM cannot expect EM to be a continuation of KM and everything that KM did.

"They need to look at EM as a mission field, not as a continuation. You can't expect EM to do everything the same way as KM because they live in a different culture with a different language," he explained.

"KM wants to dress up EM in their own spiritual attire, but it's not appropriate for them. It's like when Saul encouraged David to wear his armor into battle. David didn't like the armor because it was too heavy; so he took it off, and he went into battle as he was—and he killed it."

Ultimately, what is needed between the two generations is a better understanding of each other, but Park encouraged EM pastors to not take the KM and EM relationship "too seriously."

"It's not as bad or as rosy as you think it is, so just let it go."

This is one in a series of interviews with pastors who either serve in English ministry (EM) or have a heart for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within the Asian American church.

American Christians on the Decline, Study Finds

Yet America Still Maintains Highest Number of Christians

BY PATRICK LEE

America's religious demographic has changed in the last seven years as the number of American Christians has dropped in both percentage and overall number. On Tuesday, the Pew Research Center released a study showing the changes in the American religious landscape for the year of 2014.

The report includes a sample size of more than 35,000 Americans and shows that Christianity is not as prominent as it was seven years ago.

In 2007, when the last report was published, 78.4% of U.S. adults claimed to belong to a Christian group, which includes Protestants, Catholics, Mormons, and more.

In the most recent report, the percentage dropped to 70.6 percent. In terms of number, there are about five million fewer Christians in America today than in 2007. Among the groups identified as Christians, the largest drop was seen in the mainline Protestant and Catholic groups.

America, however, still has more Christians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the study found.

In 2007, Mainline Protestants and Catholics accounted for 18.1 and 23.9 percent of U.S. adults respectively. 7 years later, they accounted for 14.7 and 20.8 percent. Evangelical Protestants, however, only dropped from 26.3 to 25.4 percent.

While the general number of Christians in the U.S. has dropped, the number of those not associating with a faith grew.

About 22.8 percent of U.S. adults had no religious affiliation in 2014; in 2007 it was 16.1 percent. 18 percent of the U.S. adult population reportedly grew up in religious homes and now consider themselves to have no religion.

The general increase in this group affects many demographic groups, reports the Pew Research

Center. The unaffiliated group is one of the younger groups compared to religious groups, and continues to get younger. The average age of the group dropped from 38 in 2007 to 26 in 2014.

Further, the percentage of Christian college graduates has dropped from 73 to 64 percent. The percentage of Christians with less than a college education also dropped, from 81 to 73 percent.

Gender lines also show distinction in terms of religious affiliation. 27 percent of men consider themselves to have no religious affiliation while 19 percent of women identify with that group. Both males and females have increased percentage in this group, however.

The research also found that diversity of Christians in the U.S. has increased despite the overall decline in number.

"Racial and ethnic minorities now make up 41% of Catholics (up from 35% in 2007), 24% of evangelical Protestants (up from 19%) and 14% of mainline Protestants (up from 9%)," the study states.

Though the Christian faith has lost members, Islam and Hinduism have gained prominence in America. Muslims grew from .4 percent to .9 percent of U.S. adults, while Hindus grew from .4 to .7 percent. Currently, non-Christian faiths make up about 5.9 percent of the U.S. adult population, an increase from the 4.7 percent in 2007.

The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telephone interviews and has a margin of error of .6 percent.

This recent study is the second study on the religious landscape of the U.S. that Pew Research conducted and published since the first that was conducted in 2007. The research organization states that the study was originally designed to "fill the gap" that exists due to a lack of consistent, reliable, and comprehensive research with a large sample.

Need color ?

Precise Enhancement
Multi-function Printer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 / 칼라프린트 / 칼라스캔
팩스/네트워크/Mobile Productivity
최고의 인쇄 품질
획기적인 비용절감



Green M. Wild IMAGE SYSTEMS

Sales Representative : Eric Kim

GreenMWild@Gmail.com

TEL : 213 705 7778



교회및 자선,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Used printers trade in & purchasing

KONICA MINOLTA



bizhub C554e/C454e/C364e/C284e/C224e

C554e Colour B&W 55/55 ppm
C454e Colour B&W 45/45 ppm
C364e Colour B&W 36/36 ppm
C284e Colour B&W 28/28 ppm
C224e Colour B&W 22/22 ppm

*1

Dual Scan
ADF
160 opm
Duplex

*2

Dual Scan
ADF
80 opm
Simplex

Emperon
Driven!

USB
Print

Colour
Internet
Fax

Mobile
Support



Simitri
with Biomass

*Optional : Fax & Finisher